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 신앙과 삶

9+10  
SEP + OCT  
2022 vol.20



## 특집 젊은 세대가 만난 기독교 세계관

사람 사이 젊은 세대가 만난 기독교 세계관: 4인 대담 - 윤현준, 류제경, 김반석, 김재완

청년 시론 하나님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문화로 세상 보기 기독교 청년 작가가 살아가는 법



ISSN 2671-8731

09

# Contents

SEPTEMBER + OCTOBER · 2022

## 시선

그리스도인 지식인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 | 손봉호 02

## 편집장의 말

젊은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주는 소망 | 신국원 04

## 특집

### 젊은 세대가 만난 기독교 세계관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 두 괴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엄동한 06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 자료가 전수되어야 한다 | 김홍빈 08

40대 그리스도인 자기 해명서 | 안승범 10

내 믿음의 소금, 더 많은 이들도 함께 누리기를 | 홍성욱 12

섬김의 지성, 그리고 세대 계승 | 서나영 14

과학의 시대를 사는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 임상희 16

풍성한 사랑의 기독교 세계관 | 김병재 18

쪽방에 사는 한 젊은이의 당부 | 탁장한 20

## 사람 사이

젊은 세대가 만난 기독교 세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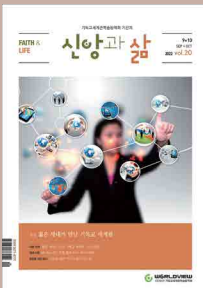
4인대담 | 윤현준, 류제경, 김반석, 김재완 22

## 포커스

웨슬리 Wentwix 선교사 환송 예배 29

## 섬김의 자리에서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발간에 참여하면서 | 이상민 30



2022. 9+10월호 | 제20호(통권 235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청년, 삶을 고민하다

### 청년 시론

하나님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임승찬	32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   김영윤	34

### 청년일터이야기

MBTI, 그리고 교회: 안전지대를 찾아서   이호준	36
하나님이 한 청년을 택하시고 빚어가시는 방식   이충남	38

## 문화로 세상 보기

### 영화를 보다

승리, 어떤 압도적 승리를 위하여	
- 영화 <한산>(2022)에서 얻는 영감   추태화	40

### 미술을 보다

기독교 청년 작가가 살아가는 법   서성록	42
-------------------------	----

### 책을 보다

당신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조예상	44
---------------------------	----

## 교회 路

성광교회 '성광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소개   최형순	46
소감문: '성광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1학기를 마치며   이윤아, 김미경	47

## 은전한 지성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3)	
- 신(新)칼뱅주의   신국원	48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3차)	50
제3회 기독 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51

## 소식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 그리스도인 지식인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Thomas Piketty)와 공동 연구자들이 미국과 서유럽에서 지식인들의 이념적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부자와 지식인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고 재산과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진보적이었는데, 최근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지식인이 민감해질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이 많아지자 지식인들이 진보 쪽으로 옮겨가고, 그 반작용으로 지식 수준과 재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부자들과 함께 보수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모습은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식 수준과 경제 수준이 낮은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 되어서 2016년 선거에 80%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도 복음주의자들 상당수가 트럼프를 따라 백신이나 마스크를 꺼리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죽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끝없는 거짓말, 여성 편력, 탈세 의혹, 국수주의 등 기독교적 모습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도 복음주의자들 다수가 트럼프를 대대적으로 지지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념

적 편향성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

2022년 초 미국 칼빈 대학의 '나이글 세계기독교 연구소'의 창립자요 수석연구원인 카펜터(Joel Carpenter)교수는 <복음주의 지식인의 활동을 일깨움: 한 기독교 학자의 회고>라는 글을 썼다. 그동안 미국 복음주의 지식인들 상당수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 활동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수행한 결과 이제는 미국 지성계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복음주의 교회의 일반 신도들에게는 거의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가슴 아파했다. 뼈아픈 사실이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노력이 지식인들의 잔치만으로 끝나고 교회와 평신도들에게는 강 건너서 반짝이는 작은 반딧불 같아 절망감이 생긴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인식할 만큼 의식이 깨인 기업인들이라도 있어서 '나이글 연구소' 같은 기관도 설립되었고 학술대회와 도서출판에 필요한 제정도 마련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인 지식인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활동하면 중병을 앓는 교회와 신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소생하고 미국을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재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부디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다. 아직까지는 피케티가 서구에서 관찰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빈번해지는 인적 교류로 한국도 서구사회의 그런 변화에서 차단될 수 없다. 특히 서구 지식인들의 이념적 지향을 바꾼 지구온난화는 이미 우리 턱 앞에 다가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과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는 지식인이라면 지금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서구 지성계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카펜터가 가슴 아파하는 현상이 한국 교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인식하려면 성경 외에도 세상에 대한 상식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 운동의 역사가 길고 목회자와 평신도 상당수가 관심을 보이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 거기다가 교회 성장 경쟁에서 기복신앙이 많이 이용되었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수준 미달 신학교가 무자격 목회자를 양산하므로 반지성적 문화가 한국 교

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그 풍향계는 신학교 교수들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다. 과거 목회자와 교인들이 존중했던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은 큰 교회와 정치꾼 목사들의 눈치를 살피야 하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큰 교회 목회자로 청빙 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상황이 되었다. 만약 이런 반지성적 문화가 한국 교회의 주류로 정착되면 지식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받은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날 것이고 한국 사회의 복음화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은 어렵게 될 것이다.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성경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해야 건강하다. 온갖 이단들과 이념들이 난무하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바로 그런 것들의 미혹에서 벗어나 세상의 풍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시의 독특성에 충실하지는 신앙 운동이다. 자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모든 것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운동이 어느 정도의 깊이와 넓이를 가진 전문지식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론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론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확산시켜야 하고 따라서 '운동'을 펼쳐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도 반드시 알리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으로도 섬기고 있다.

# 젊은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주는 소망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오래 전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난한 학자들의 취미 생활로 보인다고 평가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이 아주 소수의, 그것도 영향력이 미미한 학자들 모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시간적으로 일천함 때문에 돌리곤 했습니다.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 좋은 변명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이후에도 꾸준히 퍼져나가 교회며 학교 그리고 여러 기구들에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많습니다. 본질이 흐려지는 것과 다음 세대로의 이어짐에 대한 고민입니다. <시선>은 바로 그 점을 안타까워 합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교회 내 성도들의 운동이 되어 교회가 갱신되고 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일에 기여하여, 특히 젊은 세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번 호 특집은 ‘젊은’ 학자들이 꾸렸습니다. 염동한 형제는 ‘소장 학자’ 모임에서 이성과 신앙 사이에 다리를 놓아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 양극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김홍빈 형제는 우리 동역회를 길을 인도하고 위로를 주는 ‘따뜻한 쉼터’라고 했습니다. 각 학문에서의 기독교적 접근을 위한 안내, 대학 밖의 지역 교회,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도 주문합니다. 안승범 형제는 교회가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위선적, 일방적, 권위적이며, 포용력도 없고 공공선을 향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함을 한탄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바른 신앙의 실천이 필요하다 했고요. 홍성욱 형제는 과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느꼈던 시작의 기쁨을 기독교 세계관 모임에서 되살리고 성숙한 나눔을 갖게 됨의 유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했습니다.

서나영 자매는 동역회를 “세상과 기독교 학문과 교회를 이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략기획실 역할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대학 시절 기독교 세계관을 신앙의 지적인 틀로 생소하게 느꼈다고 한 임상희 형제는 신앙과 학문이 분리되거나 적대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 동역회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바람을 적었네요. 기독교 세계관이 ‘커다란 벽’이었지만, ‘틀’과 ‘공식’으로 바뀌는 경험을 나누어주는 김병재 형제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쪽방촌 사역을 하며 연구하는 탁장한 형제는 동역회의 신앙과 삶의 일치와 실천을 힘쓰는 노력이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신앙적 스펙트럼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장”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사람 사이>는 윤현준, 김반석, 류계경, 김재완 네 분의 젊은 세대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주역들이 현재

와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섬김의 자리>의 이상민 선생님은 <신앙과 삶>이 어떻게 <월드뷰>에 이어 저희 동역회의 기관지가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며, 동시에 동역회를 섬겨온 과정을 이야기해줍니다. 편집위원 가운데 누구보다 진지하게 꼼꼼히 글들을 살펴주는 일을 통해 저희 소식지의 질을 담보해주는 귀한 분입니다. 아울러 소식지 역할을 넘어서 한국 개신교의 현 위기 상황을 넘어서 수 있는 기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담론과 의사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론>에서는 임승찬 형제가 미래 기술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경험을 나눕니다. 김영윤 형제는 오랜 큐티와 성구 암송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전해줍니다. <청년, 일터 이야기>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는 이호준 형제는 성격 검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교회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죄예방 정책국에서 일하는 이충남 형제는 어머니와 자신의 질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 속에서 깨달은 자신의 신앙적 성장의 과정을 간증합니다.


<영화를 보다>에는 영화 <한산>이 보여준 이순신의 헌신에서 “깊고도 깊은 영적 알레고리”를 읽어낸 추태화 교수님의 해제가 돋보입니다. 영화에서 잠언24:6 말씀을 읽어낸 통찰도 눈을 밝게 열어줍니다. 진정 한국 교회도 영적 대척에 당당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미술을 보다>에선 서성록 교수님이 기독교 청년 작가들의 치열한 예술적 열정을 담은 활동을 소개해줍니다. 소장 학자들의 이야기 못지않습니다. 이들을 격

려하는 기성세대 미술인들의 노력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원대한 비전으로 문화와 자신을 통찰하려는 격려가 마음을 울립니다. <책을 보다>에선 조예상 형제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부활의 소망과 삶의 현장에서 세워져 나가는 비전을 비판적으로 소개합니다.

<교회로>엔 인천 성광교회의 어린이를 위한 세계관 학교를 최형순 전도사님이 소개합니다. 김미경 ‘엄마 선생님’과 이윤아 어린이는 참여 소감을 나눕니다. ‘하이세’ 즉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의 안목을 얻어 ‘하영공’,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했네요.

이번 호는 벌써 세 번째를 맞은 ‘소장 학자’들의 모임이 빛어낸 하나의 결실입니다. 이들과 그 뒤를 잇는 대학원생의 독서 콘서트는 <온전한 지성>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 동역회의 미래를 그려보게 합니다. 이들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성장 발전할 것을 소망합니다. 또 <온전한 지성>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왜 신앙 회복 운동 및 사회·문화 변혁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칼뱅주의를 추천하는지 소개하고, 웨슬리 선교사가 지난 57년의 한국 선교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영구 귀국함을 감사하는 환송 예배 소식도 전합니다. 늘 변치 않은 헌신으로 소식지를 꾸며주는 편집위원과 필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 : 두 괴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염동한 (부산대 사범대 물리교육과 교수)

## 가벼운 마음으로 앞을 보며

나는 대학원생 시절부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통해 배우고 경험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기독교 세계관을 지켜나가기 위한 신앙 선배님들의 노력이 담겨 온 공동체이고,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학술지도 발간하는 건실한 학술 단체이며, 이러한 신앙과 학문의 유산을 다음 세대 학자들에게 물려주고자 애쓰는 모임이었다. 근래에는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모임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애쓰고 있는 젊은 학자와 연구자들과 교제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많은 반성과 고민, 그리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모임을 통해서 필자가 누린 가장 유익했던 것을 꼽는다면, 필자의 전공 분야를 넘어서 인문학, 과학, 공학,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 특히 신앙인이며 전문가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듣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나는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나누어주기를 바라는 원고 요청을 감히 받아들여 이렇게 글을 적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주제를 필자가 말할 수 있을까? 단지 이 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부담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을 보며 용감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물론 필자의 생각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생각이나 관점은 아닐 것이다.

##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라는 두 괴물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관련한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에 대한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라는 두 개의 극단 사이에 놓여있는 무언가라는 것이다. 필자가 정의하고자 하는 지성주의란, 이른바 이성적인 방법들을 통해 신앙의 영역을 설명하고 어떤 것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배제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반지성주의란 신앙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적인 방법과 성과들을 거부하거나 배제 및 방어하려는 관점을 의미한다.

지성주의의 한 가지 예는 과학주의가 될 수 있다. 과학자들의 현재 관점과 이론에 따라 설명하기 곤란한 것들, 또는 가장 최신의 학설과 배치되는 것들은 신앙의 영역에서 배제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성주의의 다른 예는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성경을 통해 믿고 이해해온 신앙의 모든 전통은 과학적으로 또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변증될 수 있고, 변증이 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한 방법론은 틀리다고 믿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서 많은 경우 문제가 되



는 것은 이성적인 방법으로 '바로 지금' 변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일지도 모른다.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앙과 이성의 영역에 충돌이 일어날 때, 이성적 주장들을 배제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대안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불신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입장과 비전문가들의 입장 사이의 중요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깊은 신앙이 이성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는 경우가 있다. 반지성주의에 있어서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치열한 탐구와 고민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진영 논리, 그리고 이에 더해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둘은 모두 괴물과 같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일정 부분 이 두 극단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이성과 신앙 사이에 다리를 놓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앙의 다음 세대가 새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사실로 보인다.

###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성도들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연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되기 위해 꼭 정식 학위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 질문에 대해서, 세계관적 질문에 대해서, 정치적 또는 역사적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까지는 '안전한' 답을 정해놓고, 친절하게 설명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랐던 것은 아

니였을까? 이러한 권위자들의 권위 있는 조언은, 다른 한편 신앙인들이 스스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평가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답에 이르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타협은 하지 않되, 신앙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 고백은 변하는 것일 수 없다. 그러나 이성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은 잠정적이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답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고민과 토론의 무대에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우리에게 '유리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 연구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성도들 스스로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치열하게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아직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이에 대해 어떤 조건들이 더 필요할지, 어떤 신앙적 태도들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질문과 고민을 더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엄동한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였고(Ph.D), 카이스트 재학시절 기독교철학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for Creation & Science)에서 활동했다. 현재 일반상대론 및 양자중력이론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블랙홀과 우주의 기원에 관심이 있다. 자연의 근본 법칙과 우주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 자료가 전수되어야 한다

김홍빈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KLOPE연구실 & 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나는 2017년, 웨슬리 웨스트위스 선교사님과 만남을 통해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알게 되었다. 많은 이들과 나도 웨슬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여러 권의 책들을 소개받았는데, 대부분은 '과학과 신앙',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책들이었다. 특히 첫 만남 직후 'A reading list of thinking christianity about education'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육 문제를 고민했던 학자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었다. 게으른 탓에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현재 하는 물리 교육 연구가 나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그때부터 비록 구경꾼 수준이지만 늘 동역회 활동에 관심이 있었고, 기독교 세계관 학교 등 배움의 기회가 생기면 살짝 발을 내딛어보기도 했다. 최근에는 격주로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배움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숲 안에 지어진 따뜻한 쉼터 같다. 세속적 학문의 숲 속에서 길을 잃다가도 우편함에 꽂혀 있는 <신앙과 삶>을 펼치면 선배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쫓대를 향하라며 빛을 비춰주시기도 한다. 또, 만난 적 없는 많은 동역회 동료들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

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거센 바람을 피해 따뜻한 오두막의 벽난로 앞에서 위로를 얻으며 방향을 재정비하기도 한다.

어디 필자만 그렇게 느끼겠는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저마다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발버둥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오두막에서 나오는 불빛 덕분에 방향을 잡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 서적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애써서 책도 번역하시고, 더 나아가 영역별로 학문적 토대를 이룩해놓으신 선배 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쉽게 신앙과 학문에 관한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나는 대학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왜 기독교 세계관을 알지 못했을까? 최근 학교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 학생들 역시 대학 시절의 나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어떨까? 물론 많은 교수님들이 이미 주변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공적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그간 축적해 온 지혜와 고민의 흔적들이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전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령 대학에서는 각 전공 분야가 무엇이든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 의미를 조명해주는 소책자를 만들어 해당 분야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내 대학 시절만 돌아보더라도 일단 대학에 입학한 후 정신없이 물리학 이론과 실험에 몰두했을 뿐, 물리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메타적으로 생각할 여유를 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특히,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 공부를 시작할 때, 기독교 세계관으로 전공 분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일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본다. 물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도움을 받은 책들도 꽤 있을 것이다(그리스도인의 경영, 회사 생활 등). 그러나 일종의 전집 시리즈처럼 ‘얇고’,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소개서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일례로 Crossway 출판사에서 출간한 A Student’s Guide 시리즈는 각 분야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당 분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물론 각 분야를 바라보는 통일된 관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세속적 관점과는 구별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신의 학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학 밖의 청년들이다. 즉, 동역회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교회로 좀 더 확장되어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20년 1월에 열린 기독교 세계관 학교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을 데리고 갔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기독교 변증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읽던 형제였는데, 교회 안에서는 자신과 같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것을 그다지 장려하지 않는 것

같고, 격려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세계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마치 군인에게 군복과 보급품만 주고 정작 총은 주지 않은 채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과 같다.” 이 청년이 나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다. 한국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갈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지역 교회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훨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영역은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이다. 2009년 개정, 2015년 개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개정 등 국가 교육과정이 거듭 바뀌면서 그 안에 세속적 인본주의와 포스트모던 사상의 색채가 더욱 짙어졌다. 장기적으로는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자체에도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당장 지금 각급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교과별 교육과정이 어떤 사상적 배경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일은 비단 교육 분야를 전공하는 일부 연구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합심하여 감당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흥빈**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KLOPE연구실과 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물리 교육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인천제일감리교회 집사, 속장으로 섬기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 40대 그리스도인 자기 해명서

안승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돌이켜 보면, 나는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 속 단정한 밑줄처럼 자랐던 것 같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인생의 가치 대부분을 주일학교 시절 배웠다. 중고등부 시절에도 찬양팀, 성가대, 임원을 하면서 주말을 교회에서 보내는 삶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다. 시내에 위치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온 CCM 앨범을 사 듣는 일이 취미라면 취미였다. 교회 형들 어깨너머로 통기타를 배우며 ‘찬미 예수’ 시리즈 악보집과 친하게 지내던 시간도 생각한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배타적 보수성을 드러내는 신앙 서적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읽었던 기억도 난다. 물론 그런 책들의 권면이 없어도 교회 밖의 문화에 마음을 두거나 시간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다. 나는 열다섯 살, 입자도 천막 교회에서 열린 여름수련회 이후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꿈을 가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구체성 없는 상상일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수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 내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다. 20대를 통과하는 중 신학을 전공한 교수가 되는 꿈에서 일반대학 교수가 되는 꿈 정도로 궤도 수정이 있었을 뿐이다.

독자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방금 말씀드린 ‘궤도 수정’의 과정을 자가 해명해보려고 한다. 어느 시대이건,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낸 세대들이 서로 다른 의식과 취향으로 뒤섞여 살아간다.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라는 말은 이때에도 쓸 수

있을 거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말을 빌리면 미시적으로 변별되는 ‘감정 구조’를 가진 세대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0년 안팎 출생자)의 경우, 국가 재건을 위한 부름 앞에 떠밀려야 했다. 빈곤을 이기기 위한 노력은 개인적 욕망이라기보다는 가족주의, 혈연주의 전통 속에서 피붙이를 위한 희생의 의미가 컸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궈냈다. 그 이후 1980년대에 20대를 보낸 세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N86세대’라는 용어로 단순 환원하기도 한다. 그들을 통해 한국의 현실 정치는 진실보했고, 소위 ‘민주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세대를 끝으로 한국 사회 특유의 공동체주의는 점차 희석된 게 아닌가 한다.

나는 현재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인 44세이다. 그리고 90년대에 20대에 진입한 세대이다. ‘자유’, ‘민주’, ‘평화’, ‘통일’, ‘민족’과 같은 거대 담론과 연결된 단어들에 사로잡혀 대학을 다닌 세대는 아니다. 나의 세대는 IMF 사태가 벌어진 이후 우리나라가 극심한 ‘피로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을 봤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환경에서 성장했고,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러나 특유의 능력주의 문화 속에서 경쟁을 통한 성공에의 압력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받은 세대이기도 하

다. 이를테면 내가 20대를 보내던 무렵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신화는 없다>, <7막 7장>과 같은 책들이다. 한국 교회의 기열찬 성장은 베이비붐 세대에서부터 내가 속한 세대까지 정말 눈부셨다. 각 세대가 안고 있는 불안과 고통, 그들이 꾸던 욕망(세속적인 욕망까지 포함해서)에 교회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여러 통계를 보건대, 지금 한국 교회는 급속한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고 있는 듯하다. 한번 붙은 가속도를 어느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다. 나는 서른 살에 청년 사역이 활발하던 동안교회에서 청년부 위원장을 했다. 전체 교인이 5천 명 수준이었는데, 대학부와 청년부에 출석하던 청년 수를 합하면 2천 명에 이르던 교회였다. 생각할수록 서글픈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런 동안교회조차도 지금은 전성기의 1/3 수준의 청년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소위 'MZ세대'로 통칭되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또 다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진 것 같다. 그들 세대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미움받을 용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공정하다는 착각> 등이 있다. 극심한 '피로 사회' 이후 자기 안녕에 충실한, 파편화된 개인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서적 고립과 불안, 편의적인 관계 내에서의 정체성의 혼란,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비상식에 의한 피해의식 등은 이들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다. 교회가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정작 그들에게 한국 교회는 마음을 주고픈 친구가 아니다. 그들의 내면에 비친 교회의 모습을 헤아려 보겠다. 복음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시대 교회는 귀를 열고 소통하려 하지 않는 집단이다, 가장 고상하고

도덕적인 언어를 공유하지만, 주요 종교 중 가장 위선적인 집단일 수도 있다.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하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 그들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기까지 하다. 정죄의 화법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재단하려 들지만, 정작 평가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포용력이 없다. 일부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 가치, 성장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다. 예수님처럼 사회를 돌보는 데에는 오히려 소홀하고, 공공선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책임적 역할을 감당하려 하지도 않는다.

내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일반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자 결단하게 된 계기는 그와 관련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자리가 교회 바깥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에 슬며시 발을 들여놓은 것도 그런 고민의 결과 중 하나일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란,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세상과는 절실히 소통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성도를 모으는 일에만 열심이고, 부름받음을 확인시킨 후 제 사명대로 내보내는 일에 소홀한 교회는 직무유기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편지'로, '등경 위의 빛'으로 살지 못한 나무부터 반성하려 한다. 팬데믹이 지나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치겠지만, '개신교인 거리두기'는 여전할 것만 같아서 슬프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그릇의 크기만큼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기도한다.

## FAITH &amp; LIFE



## 글쓴이 안승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영화평론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부설 K-컬처·스토리콘텐츠포럼 소장으로 한류 연구와 함께 문화콘텐츠투를 둘러싼 수용문화에 관심을 갖고 비평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기존 서사학의 방법론을 응용·확장하여 스토리콘텐츠투를 기획·창작·비평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 내 믿음의 소금, 더 많은 이들도 함께 누리기를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 이론천문센터 선임연구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내게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 하면 가장 먼저 서울의 어느 공원에서 찢절매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 봄, 대학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석종준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전해 듣고, 호기롭게 발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업무와 개인사에 치여 시간이 흘러가다가, 마침 가족들과 함께 공원 나들이를 나갔을 때 부랴부랴 발표 원고 투고일이 임박했다는 독촉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한낮에 공원 한가운데서 찢절매면서 금방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 그때부터 동역회와 인연을 맺게 되어, 1년에 한 번씩은 학술발표나 논찬에 참여하고, 부족하지만 이곳에 글을 투고할 기회도 얻게 되었다. 또한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40대 이하 젊은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모임에도 초청받은 것은 내게 큰 축복이다.

돌이켜보면 갓 스물이 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로, 내게는 감사하게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접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특히, 좀 과장하자면, 2004년 봄부터 2005년 가을까지가 필자의 이후 인생을 반쯤 결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보다 반년 전인 2003년 가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나, 나는 여전히 스스로 설계한 인생 계획을 따를 뿐이었다. 그러다가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았던 대학교 졸업이 하

나님의 섭리로 6개월 늦어지게 되면서, 단순히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내 인생 계획을 처음부터 갈아엎어야만 했다. 그 후 2004년 봄부터 여러 선배를 통해 카이스트 기독교학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for Creation & Science)에 가입하고,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라는 이론을 처음 접했다. 내 연구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었다. 그러나 2005년 여름, 믿지 않는 연구실 선배들과 간 해외학회에서 지적설계를 포함한 기독교적 학문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후 몇 개월간은 내가 연구하는 과학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는지, 과학이란 마치 (죄송하지만) 살인이나 매춘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져 살았다. 그러던 내게 2005년 가을에 있던 '2005 성서한국대회'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숙제와 같았는데, 특히 과학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소모임이 있다는 점이 그러했다. 첫 소모임에서 각자를 소개할 때,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는 채로 "나는 이곳에 동료를 찾기 위해 왔다"라고 무슨 만화의 한 장면처럼 소리쳤던 기억이 부끄럽게 남아 있다. 당시에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학교를 벗어난 여러 사람들과도 직간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요즘도 RACS에서, 또 (자주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모임에서 과학을 포함한 여러 주제를 같이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내게 소금과 같은 기쁨을 준다. 물론 비슷한 이야기를 학회나 연구 현장의 동료들과도, 또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주제라도, 기독교 세계관을 같이 공부하는 기독교학술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얼마나 진실하고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연구 현장에서 토론할 때는 학술적인 깊이는 좀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놓고 거역하는 사상에 부딪혀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때가 많다. 반대로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안타깝게도 ‘토론’ 자체가 그다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다. 그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분이 하는 선포와 순종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또한, 내가 토론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가 어떤 분이 상처받지는 않을지, 혹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의심하지는 않을지, 이런저런 걱정에 하고 싶은 말을 참게 되는 일이 많았다.

지난 1년간 내가 속한 기독교 세계관 모임에서 같이 공부하고 다룬 주제는 매우 다양했다. 다윈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뇌와 영혼의 관계는 무엇인가. 과학과 신앙을 어떤 관계로 볼 것인가. 전쟁, 복지, (동성애를 포함한) 성 문제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 서구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실용주의란 무엇인가. 창세기 1-11장에 있는 ‘원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인가. 모두 하나같이 어려운 주제고, 대부분 깊은 토론을 해도 뾰족한 정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그런 고민을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닐까. 비록

토론 끝에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과정을 거친 나와 우리는 그 이전의 나와 우리와는 분명 다르다고 믿는다. 최소한, 이런 고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나눌 때 세심하게 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내가 기독교 세계관 모임에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다.

안타까운 점은, 내가 기독교 세계관 공동체에서 누리는 유익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계에서 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들은 비록 어렵기는 해도 누군가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숨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학계의 이야기를 접할 기회는 흔치 않다. 누군가는 너무 어려워져서,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서, 누군가는 학계가 사탄에게 점령당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보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주위에 있는 믿음 좋은 분의 권면에, 인터넷에서 찾은 명설교에, 감성적인 신앙 서적에 우리 신앙의 성장을 온전히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쩌면,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가 너무 괴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 공동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FAITH & LIFE**



**글쓴이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 이론천문센터 선임연구원이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우주론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2018~2020), 고등과학원 QUC 연구원(2013~2016), 충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2011~2013)을 지냈다. 현재 대덕한빛교회 안수집사이며, 카이스트 기독교학술동아리 RACS 간사로도 섬기고 있다.

# 섬김의 지성, 그리고 세대 계승

서나영 (백석대학교 강사)



내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에 정회원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가입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동역회 산하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가장 실천적인 영역들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학회였다.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기존의 학회들은 각자의 교단 교리의 잣대가 엄격했고, 실천적 기독교 세계관 영역을 소화할 보수 개혁주의 학회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기학연은 각 영역에서의 다채로운 논문들을 다루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울타리가 낮았다. 둘째, 신국원 교수를 비롯하여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이름 때문이었다. 이름은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신학적 안전함, 신앙적 깊이, 학문적 탁월함 등이 존경받는 선배들의 이름을 통해 검증되었다. 셋째, 동역회는 '세상과 기독교 학문과 교회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교계와 신학계는 이상하리만큼 친하지 않다. 이 두 영역의 서먹한 관계로 인해,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

다. 동역회는 이러한 어두운 한국 교회사에서, 기독교 지성과 교회와 세상을 이을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돌아볼 때, 동역회 활동을 통해 그때의 기대와 감사함에 대한 실체를 보았기에 기쁘다.

특히, 기학연은 교회와 신학교와 다른 신학회가 하지 못한 귀한 업적을 남겨왔다. 그중에 가장 빛을 발했던 부분은, 매년 정기학술대회 때 제시하는 기독교의 시대적 과제 인식과 해결 방법론의 공유라고 확신한다. 시대 속에서 한국의 목사들과 신학생들과 평신도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단언컨대, 그중 하나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기독교적으로 읽어내는 안목이다. 그뿐 아니라 그 논점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신학적으로 안전한 지침이 필수적이다. 일 년에 두 번, 가장 발 빠르게 앞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학연의 사역은 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종의 '전략기획실' 같은 역할을 감당해왔다. 대형교회들과 영향력 있는 교회들



은 기학연이 주최한 학술대회와 주제와 발제들을 참고해 사역의 방향을 잡고, 신학교와 학회들은 그 주제의 내용을 발전시켜 후속 연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를 한 발짝 앞서서 읽어 한국의 기독교계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은 각 학계와 교계에서 후속으로 연구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의 열린 회로를 개척한 것이 기학연의 가장 큰 결실이 아닐까? 한편,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동역회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 교회 연합이나 신학교에서의 연합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준비된 사람이 쓰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한계일 것이다. 동역회가 오늘날의 위상을 가진 데에는 균형 잡힌 준비된 시니어 학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이곳에는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기독교 신학 분야에서 충분히 훈련되고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도 탁월한 다양한 학자들이 이전에 없던 신선한 길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그 밖에도 학문적 탁월함으로 기독교 신학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해주고 접근하게 도와준 여러 학자의 연구와 공헌이 있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인 많은 연구 및 콘텐츠와 더불어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지성들이 연합하여 모임을 지속한 결과이다.

내가 보는 동역회의 최대 강점은 고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있었다. 개인적으로 만나 본 시니어 학자들은 사고방식이 유난히 젊었고, 통치와 권위가 아닌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의 모습은, 높은 자리에서 좋은 옷을 입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닌, 중처럼 노예처럼 섬기고 또 섬기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동역회에서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끌어 가려는 시니어 리더들의 사고방식이 나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 시점에서 마음에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역시 사람의 문제다. 동역회가 과연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시켜 믿음과 지성의 세대 계승을 하고 있는가? 각자 전문 영역의 연구에 바쁜 젊은 학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들을 이끌 신학적 가이드의 기준과 경계선이 존재하는가? 이들은 바쁜 삶 속에서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동역회의 미래는 후학도들의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건은 각 영역 학자들의 마음에 헌신과 섬김, 그리고 희생과 순종의 자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한 갈망과 마음의 헌신'이 우리의 지성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구에 더 투자하고, 효율과 합리가 아닌 헌신의 기쁨을 맛보는 젊은 학자들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또한 그들이 교회에서 더 헌신하고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바란다. 동역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목소리를 내 보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뜨겁다. Soli deo gloria! **FAITH & LIFE**

#### 글쓴이 서나영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미국 켄터키 루이빌(Louisville)의 남침례신학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음악(피아노) 전공으로 학부(B.A), 석사(M.M)를, 그리고 신학석사(M.div.equi.), 기독교예술학박사(Ph.D)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사랑의 교회 부목사 사모이며, 순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 과학의 시대를 사는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임상희 (기초과학연구원 순수물리이론연구단 연구위원)



대학시절 IVF(한국기독교학생회)에 들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용어를 처음 듣게 되었다. 이전까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주로 관계적이고 감정적인 측면들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신앙의 합리적 접근의 측면과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적인 틀이 있다는 것은 새롭고도 이질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졌던 기독교 세계관 강의들은 한동안 내 관심사 밖이었다. 그러나 나는 물리학에 매료되어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법칙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 인생과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질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 점차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철학과 신학으로도 관심이 옮겨갔다. 그리고 이전에 들어왔던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지적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중, 물리학과 진화 생물학을 토대로 하는 자연주의와 유물론주의가 세계에 대한 또 하나의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롭게 와 닿았던 것을 기억한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져왔고 개인적인 확고한 믿음

과 경험 때문이었을까. 자연주의가 본인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오진 않았지만, 분명 그 자체로 세계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틀이 될 수 있어 보였고, 주변의 대다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바로 이러한 관점에 뿌리를 두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런 이해를 다소 짧은 시간 안에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부 시절 주로 IVF를 통해 접할 수 있었던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의 여러 교수님들의 저작과 강의들 때문이었다. 복음의 전파와 한 사람이 복음을 수용함이 반드시 사람의 이해와 합리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세계관적 이해와 더불어 시대의 주류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밖 사회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헤아려가며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동역회의 활동은 나 개인이 체험한 바와 같이 한국 교회와 세상 사이의 소통을 돕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왔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주변 연구실 선배의 권유로 카

이스트 기독교 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for Creation & Science)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동아리는 초창기인 1980~90년대까지는 한국창조과학회와 맥을 같이하는 그룹이었다. 그러나 내가 참여할 당시에는 이미 '카이스트창조론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과학과 신앙의 조화 문제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열린 이해를 추구하는 스터디 그룹의 성격이었다. 나는 RACS를 통해 창조과학진영에 속한 분들로부터 유신론적 진화론 진영에 속한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과의 직간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동역회에 속한 학자들로부터 배운 철학과 신학적 통찰, 회원들과의 토론과 스터디는 과학과 신앙의 조화 문제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는데 말로는 다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선물을 제공해주었다. 과학과 신앙의 조화 문제는 언뜻 보기에 순전히 지식의 문제 같지만 조금 더 만족스러운 답을 추구할수록 인간의 죄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과 같은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장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문이나 지성이 기독교 신앙과 분리되지 않고 적대관계에 있는 것은 더욱 아니며,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고 복음의 본질을 세상에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나의 깨달음은 과정은 앞서 이 질문을 탐구한 분들의 길잡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지금도 이와 같은 여정에는 선배와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동역회는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선물의 공동체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

나는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이기에 과학과 신앙 사이의 조화 문제에 관심이 크다. 수 세기 전부터 인류는 '과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영향력이 큰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그러한데,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건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개인적으로 대학원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회원들과의 교류와 스터디를 통해 숙고해온바 이 문제는 보기보다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개별 전문성 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시하는 답은 늘 아쉬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과학 학문 활동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신학과 철학 및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토대로 이 문제를 더 깊게 논할 수 있는 '신학자'가 우리 시대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외국에는 그러한 학자들이 더러 있는 것 같고 국내에 번역된 몇몇 서적들도 있으나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대중적인 전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이러한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과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과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의 교류와 대화를 위한 장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화가 학자들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교회와 대중들에게 쉬운 언어로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과학의 영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시대에 능력 있게 임하기를 동역회 공동체와 더불어 소망하며 기도한다.

####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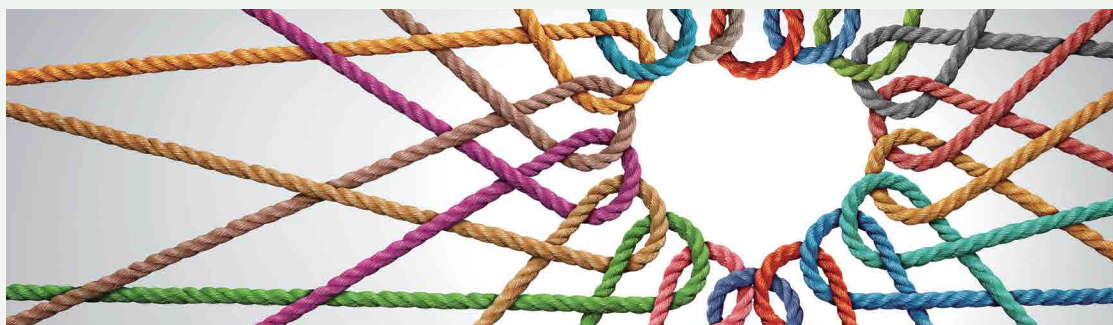
#### 글쓴이 임상희



기초과학연구원 순수물리이론연구단 소속 연구위원이다. 카이스트 물리학에서 입자물리이론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현재까지 입자물리이론과 우주론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카이스트 재학시절 기독교동아리 IVF와 RACS에서 활동했고,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 풍성한 사랑의 기독교 세계관

김병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과학교사)



내게 기독교 세계관은 커다란 벽이었다. 알기 힘든 개념들과 수많은 철학적 용어들이 머리를 맴돌았다. 익숙함은 무서웠다.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것처럼,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익숙해지는 단어들을 내 것으로 여겼다.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기독교 세계관은 칼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들어온 기독교 세계관은 30대에 이르기까지 내 주위의 모든 영역을 재단하는 도구였다. 문학, 영화, 음악, 저자, 문화의 세세한 부분까지. 나의 신앙이 이 정도라고 내밀 듯, 기독교 세계관은 무기이자 자량이었다. 문화의 '영적 전쟁'에서는 충혈된 눈으로 뚫어져라 살펴 칼을 휘둘러 승리해야 했다. 그 대상에는 교회도 있었다. 교회의 작은 요소 하나까지, 그것이 내가 아는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재가며 비판했다. 교회는 정말 비판할 게 많았다. 매몰차게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고 나면 시원했고 뿌듯했다. "그들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나의 기독교 세계관이었다. 한마디로 아주 '단순'(simple)했다.

기독교 세계관은 공식이었다. 나만의 공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그 많은 현학과 철학적 용어들은 공식의 미사여구가 되고 근거가 되었다. 어떤 미지수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공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으로 대면했던 현상들을 공식이라는 거대한 집합 안에 우겨넣었다. 전혀 복잡하지 않다. 간단하다.

이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던 내게 작은 돌맹이를 던져준 것은 다름 아닌 학교의 학생들이었다. 학생들과 깊이 있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보였다. 아니, 사랑의 '대상'이 보였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다. 학생들의 각자 다른 사랑의 대상은 삶의 다양한 면으로 표출되었다. 교사로서 있으려면 그들의 사랑을 살펴야 했고, 그것을 토대로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 했다. 그들의 마음속 근원의 사랑. 돌아보니 그것이 세계관이었다. '사랑'말이다!

학생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거울이 되어 나를 비쳤다. 내가 가졌다고 믿었던 세계관이 사실 관념이었다.

는 걸 발견한 것도 그때였다. 이전에도 내게 기독교 세계관이 있었겠으나 나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실존적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눈에 보이는 단면을 단순히 중립적이라고 믿은 구조에 맞췄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랑이 중립적인 것이 아니기에, 기독교 세계관은 의지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추구하고, 삶의 다면적인 모습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파하는 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나도 그렇게 되어야 했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의 체계적인 구조는 그 자체로 매우 소중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체계성은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이도록 한다.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지성적 신앙의 중요성을 교회에 공급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적 측면이 강조되었기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린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문화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도 그렇다. 문화의 영적 전쟁에서는 언제나 치절하게 피를 흘려야 할까? 문화를 따뜻한 눈으로 살펴 포섭과 회복의 관점을 강조할 순 없을까?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비난을 위한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뜻한 비판을 넘어 세심한 보살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삶을 이해할 수 없다.

2012년, 서른을 넘겨 비로소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 없었다. 교회에 발을 들인지 십수년 만의 일이었다. 부끄럽지만 그랬다. 내뱉었던 비판의 말들이 단지 비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때였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다만 신부이기에 더욱 사랑하고 보살펴야 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깊게 알아야 했다. 나는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비난했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신앙고백을 향한 무한히 다양한 사람들의 발걸음. 이들이 걸어온 삶의 궤적은 단 하나의 틀로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지성적 측면을 넘어 삶을 포괄하는 전 인격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

이런 면에서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의 '청년, 삶을 고민하다'라는 항목의 글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이 많은 시대에 그들의 생각을 알아가는 의미는 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삶, 특히 '청년일터이야기'를 통해 삶의 세밀한 자락을 들여다보고 소개하는 일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사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추구해야 할 바를 보여주는 고무적이다. 바라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싶다. 청년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세대의 삶을, 좀 더 다면적으로 보면 좋겠다. 학자, 박사, 전문직 종사자와 더불어 요식업자, 생산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의 삶을 포함해서 말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고단한 학문적 작업, 철학적 물음과 함께 걸어간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지식과 모든 총명'이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했다. 기독교 세계관이 교회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삶을 껴안는 위치에서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병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의 교육연구원 및 과학교사이며, 기대연(기독교대 안학교연맹) 정책위 연구팀 소속으로 있다. 경기도 화성의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가을, 선물, 노을 세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다. 신학과 철학, 교육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너희들에게 가는 따뜻한 속도>(비비투), <교사들이 말하는 기독교대안교육>(ACTS교육연구소, 공저)이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 쪽방에 사는 한 젊은이의 당부

탁장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내가 그동안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는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고 영성과 지성을 조화시키며, 기독교 신앙을 학문과 삶으로 실천하고자 애쓰는 공동체이다. 그 마음에 동참하고자 개인적으로는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했고, <신앙과 삶>(2020년 1+2월호)에 글을 기고했으며, 동역회가 2020년 '세상 바로살기'라는 주제로 삼일교회에서 진행한 기독교세계관학교에 참석해 강의를 들었다. 최근에는 방학마다 개최되고 있는 3번의 '기독교대학원생 연합 독서나눔 콘서트'에 함께했고, 첫 모임에서는 발표를 맡기도 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동역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학문 분야에서 신앙을 표현하고자 애쓰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 또한 늘 해오던 바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학 전공 내에서도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난이 문제가 나의 신앙과 괴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논문의 특성상 신앙 언어를 드러낼 수 없지만, 난 지금까지의 연구 궤적을 이웃 사랑의 길로 믿고 그 길을 계속 걷는다. 격월로 접하는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을 읽으며 일터에서, 연구에서, 삶의 여정

에서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자극을 얻는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부분들도 있었다. 우선 동역회가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신앙적 스펙트럼의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일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군 복무 시절에 무신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한 후임 병사와 함께한 시간을 그리워하곤 한다. 그는 자신의 논리로 예수님을 가장 나약한 인간군상으로 취급하고 배격했지만, 나는 그와의 대화에서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도 깊은 신앙을 역설적으로 발견하곤 했다. 퇴폐적이지만 강인했고 삶에 대한 의지로 충만했으며 무엇보다 신이 없이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어떤 어려움도 주 예수님께 쉬어 맡길 수 있는 나와 달리, 그는 유약하면 안 되었고 매사에 용기를 잃지 않아야 했다. 꺾이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인은 흔히 자아가 죽지 않았다고 쉽게 평가하기 쉬우나, 나는 그를 통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배웠다. 이것은 특히 내가 예배 강단에서 설교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식의 설교를 접

할 때마다 자꾸 마음에 걸리던 문제였다. 가난을 죄로 여기고 개인을 탓하는 방향의 성경해석과 사조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무죄 선언’을 하고 위축된 자이를 생동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무신론자였던 그의 영향으로 더 뚜렷해지고 입체화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는 앤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1966)을 배경으로 한 영화 <사일런스>(2016)를 통해 나와 연결고리를 제시했고, 결국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다.

현재 나는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도시 빈민의 만성적 빈곤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그리고 같은 곳에 살면서 빈민 사역을 하는, 무신론과 유신론을 연결하는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 어느 전도사님과 교류하며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신앙의 표현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동역회가 “가난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 내지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는 도발적인 담론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빈곤 밀집 지역인 동자동 쪽방촌과 4년째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22년 9월 현재 1.5평 쪽방에 사는 젊은이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마음의 준비만 6년을 했는데도 현재 거처로 이주하기까지 솔직히 두려웠다. 외부에서 잠시 관찰/봉사하는 것과 그 생태계에 거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나는 이곳에 살며 그동안 몰랐던 슬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 지독한 가난의 공간에 적응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연구자로서 잠시 머무르는 입장에기에 평생을 여기서 사는 사람들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단순한 쪽방 체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온몸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한다. 이곳에 살며 나는 기초 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자주 굶주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여러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는 생활을 하면

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뇌에 잠기기도 한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또 그렇게 밥을 나누어주기도 하지만 왜 가난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는 차단하는가”라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마 25:45)이라는 말씀은 왜 다른 이들이 아닌 ‘지극히 작은 자’인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까.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어째서 이 부조리한 가난을 허락할까. 하루를 마감하며 매일 밤 쪽방에 누울 때마다 이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이 복잡하고 난해한 공간에서 하루하루 시험대에 오르며 지쳐간다.

그러나 너무나 아픈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만 하겠다. 쪽방촌 사람들에게 별들 날이 오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무력해 보인다. 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쪽방촌의 실상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세상에 보일 그날을 고대한다. 그래서 이 연구작업과 신앙과 삶을 쪽방촌에서 오늘도 하나로 모은다. 동역회에 바라건대 앞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앤도 슈사쿠가 그랬던 철저히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공유하며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지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만 하기보다 그 무력한 모습으로 상대의 삶을 배우고 그들에게 녹아드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 FAITH & LIFE

#### 글쓴이 탁장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중 수료했다. 현재 서울의 한 쪽방촌에 거주하면서 도시 빈민의 만성적 빈곤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처음 접한 것은 석종준 선교사를 통해서였다. 서울대학교교회에서 학부생 때부터 목사와 성도로 만나 현재 기독교대학원생 독서 모임 등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매주 함께 하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저서로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가>(2021)가 있다.

## 젊은 세대가 만난 기독교 세계관 : 4인 대담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1980년대 대학원생들이 신앙과 삶(학문)의 이원화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곧 이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학교,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고, 영성과 지성의 균형 잡힌 제자도에 대한 성경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다만 현재 한국 교회는 양적 쇠퇴기에 들어섰으며, 젊은 세대 이탈의 가속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미래 한국 사회의 암울한 지표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젊은 그리스도인 지성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만나는 일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앞으로 더 집중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통찰 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석종준**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우선 각자 생각하시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하 '기세운')이 무엇인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윤헌준** 저에게 '기세운'은 교회와 세상이 소통하는 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각 시대의 영향을 받고, 시대의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인데요, '기세운'은 우리가 자기 시대에 "어떻게 사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더 나은 성경적 해법을 찾기 위해 계속 세상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김반석** 개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안경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안경에 다양한 렌즈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구요. '기세운'은 그 렌즈들을 바꾸거나 겹쳐보기도 하면서, 무엇이 좀 더 성경적 삶으로 풍성하고 참되게 만드는지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저에게 '기세운'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지성 운동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2019년 <신앙과 삶>(7+8월호) 창간호의 '시선'에서, 19세기 여러 사상의 한복판에 '기독교 세계관'이 등장한 맥락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기세운'은 그리스도인 지성들이 각 시대에 좋은 질문을 함께 발굴하고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반석, 석종준, 김재완, 류제경, 윤헌준

**일시 & 장소**  
2022년 9월 6일(화) 오후 8시 30분

**장소**  
ZOOM 회의실

**대담자**  
윤헌준(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류제경(서울대 물리학부 교수),  
김반석(도교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사회**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류제경**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안경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기세운'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아래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쓸데없는 싸움을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석종준** 선생님들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한국의 '기세운' 또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어떤 것인가요.

**윤현준** 저는 학부 때 처음,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IVP) 등 로널드 사이더(Ronald James Sider)의 책들을 접하면서였고요.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2018년입니다. 현재 실행위원과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반석** 저는 학부 1학년 기독교인 오리엔테이션 때, 서울대 선배로부터 신국원 교수님의 <니고데모의 안경>을 선물로 받은 게 첫 인연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를 배웠습니다. 또 세상의 학문을 상대화하면서 소화해 나갈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2017년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중, 석종준 선교사님을 만나 교제하며 위로를 받았고, 이듬해 동역회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김재완** 저는 총신대 학부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신국원 교수님의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되는지 처음 알았고,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류제경** 저는 약 12년 전, 카이스트 학생일 때, 기독교 학문연구회 학회에서 '연구를 삶의 제사로 드리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적용하여 "연구가 삶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를 처음 접한 일이었고, 최근에는 그

리스도인 소장 학자 모임을 통해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석종준** 한국 '기세운'의 성과와 한계를 각자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윤현준** 지성도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찾게 한 것,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일깨워 준 것이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지상명령과 창조 이야기를 통한 문화명령의 중요성을 함께 일깨워 준 것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일깨움이 과연 일상의 영역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너무 지성인 중심의 운동으로만 자리매김했다는 인상, 따라서 '기세운'의 주체와 정의를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반석** 오늘 대담을 위해 지난 2003년의 기독교 세계관 논쟁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당시에는 시니어와 주니어 사이에 문제의식과 대결 구도가 확연한 측면이 있어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만난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유연했고, 다름에 대해서도 포용하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세운'이 나를 자기 갱신을 잘해 온 측면이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중간 세대 층이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 지나치게 지성 운동에 머무르다 보니까 사회와 교회의 성경적 변혁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동력원이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열매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완** 저는 값진 성과로 성속(聖俗)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문법(언어)을 제공해 준 것, 그리고 광범위한 그리스도인 학자의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던 것들 들겠습니다. 그러나 동역회는 지성 운동의 핵심 진지로서의 자리매김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저는 대학원생 독서 모임을 하면서, 총론은 대화

가 잘 되는데, 전공과 연결된 각론으로 들어가면, 참여자들의 목마름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전공 차원에서도 깊이 있는 고민과 구체적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동역회가 더 섬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류제경** 중요한 공헌은 성경을 교회 생활 밖의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위적 삶의 지침이나 원리적 방안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 시절 때는 그다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계기는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 학회에서 그리스도인 교수님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학문에 대한 비전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형식의 문제 때문에 학문적이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문의 형식을 따지는 학자들 모임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기세운’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은 아무개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공명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석종준**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화두를,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자기만의 이해와 해석으로 남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윤현준** 저는 이것이 각기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달라서 일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특징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데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세운’은 오히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대안이자 통로가 되어야지요. 그러려면 우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반석** 관련해서 한국 교회에서 자주 오용되는 말은 ‘인본주의’입니다. 자신은 ‘신본주의’라고 전제하고 어

떤 대상을 자신감이 충만해서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나’하고 다르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중잣대의 착각이지요. 저는 동역회가 이러한 착각과 개념들의 오용을 바로잡는 역할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제경**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의 다양성을 허용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른 관점을 배제해버리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허용하자면서 허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나’부터 평가받아야 하는데, 먼저 ‘남’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각자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종준** 한국 ‘기세운’의 시작은 1980년대 초, 신앙과 삶, 신앙과 학문의 이원화를 극복하려는 대학원생들의 자발적 독서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모임들이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김재완** <신앙과 삶> 창간호(2019년 7+8월)에 실린 황영철 목사님(수원성의교회 담임목사, ‘기학연’ 첫 세대)의 글을 보면, “당시 참여자들은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간다는 흥분이 있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모임에는 학생들이 막막함을 더 많이 느끼는 듯합니다. 이유는 1980년대와 지금의 풍토 차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교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인 연구자로서 먼저 고민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야기 들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반석** 개별 학문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최신 담론 등을 접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때 고민을 앞서 했던, 비슷한 전공의 그리스도인 교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며 분명 유익할 것입니다. 꼭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저의 경우는 캠퍼스에서 비슷한 고민을 할 때, 석종준 선교사님과 만나 미셸 푸코 등을 신앙 이야기와 함께 나누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석종준** 신앙과 직장, 신앙과 학문의 이원화 극복 문제는 학자들에게도 동일한 과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류제경, 윤현준 두 분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윤현준** 저는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에만 집중한 나머지 때로 복음이 건조해진다”라는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세상의 언어로 세련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잃지 않는 지혜는 성육신에 내포된 진리의 핵심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19세기 기독교 변증으로써의 기독교 세계관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그 형식의 계승에만 집착해 정작 삶이 무미건조해져서는 안됩니다. 이원화 극복의 핵심은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즉 성육신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세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류제경** 결국 영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과학자이기 때문에, 전공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공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를 위해 우리는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느끼면, 피하지 말고 오히려 진리로 무장되어서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논리를 준비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믿지 않는 친구와 신앙인으로 민감한 이슈를 같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기독교 이야기 이전에, 가정에 대해 말하면서, “나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납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대응이 모두에게 통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탁상공론이 되지 않는 ‘기세운’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종준** 우리 시대는 다원성을 존중하는 흐름 속에 있고, 따라서 동역회를 비롯한 여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복음주의 신앙을 공유하더라도, 한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을 봅니다(창조론, 동성애, 배제와 포용 등). 이러한 공존과 성경적 진리 추구는 양립이 가능한 것일까요?

**류제경** 저는 일단 양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 논쟁할 수 있습니다. 창조론, 천년왕국, 동성애 등.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 의견이 맞다고 내가 동조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는 나와 너 중 누가 참이냐를 따지기 위해 토론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박사 후 과정을 하면서 배운 것은 토론의 목적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잘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윤헌준** 또 하나는 '성경적 진리'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즉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믿고 있다면, 그다음은 교단이나 신학적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강조점의 다름을 다양성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 타협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15장에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인 베드로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한 후 유대인과 이방인 장벽을 허문 사건이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행 15:7~8). 즉 어떻게 양립이 가능할지의 문제는 우리가 토론을 결론 산출의 자리가 아닌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보면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질 때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반석** 두 분의 토론에 관한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지만, 네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알 것 같다.” 여기서 끝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서투름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같은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요. 제가 극단적 우파 입장에 치우쳐 있는 스피커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느 쪽의 주장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요. 가령 동성애 등의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강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동의가 안 되는 지점은 “좌파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우파, 좌파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 고요. 복음주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자기하고 입장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마르크스의 추종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고 잘못된 폭력입니다.

**김재완** 기본적으로는 앞의 선생님들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공유

하고 있다면,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틀림이 아닌 다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도사 출신 인류학도인데요. 학과에서 스님 출신 인류학도와 이야기를 종종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잘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성’, ‘성직자’에 대해 이야기를 보았는데,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단이나 세상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네가 틀리면 내가 맞고, 네가 맞으면 내가 틀린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잘못되었습니다.

**석종준** 한국교회의 청년 세대 이탈률은 심각합니다. 최근 어느 대학원생은 자기 연구실 학생 25명 중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단 2명이라고 하더군요. 캠퍼스에는 여전히 여러 선교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동역회는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류제경**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 결국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상황 변화에 따른 세속화의 물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윗세대는 배고픔, 전쟁 등 엄청난 고난과 난관을 겪었지만, 그것을 신앙과 연결해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등 따습고 배부르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 세상이 미혹하는 죄성(罪性)의 굴레에 빠진 측면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완** 동역회가 캠퍼스 청년들을 잘 섬길 방법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류학도로서 한국 교회에 양적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계속 쇠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잘 쇠

퇴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성장에서 쇠퇴라는 완전히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알맞게 재구성하고 기독교의 본질과 진리를 붙잡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동역회는 이때 캠퍼스에서 탁월한 기독교 지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와 교회에 적절한 질문거리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고, 캠퍼스 선교단체와는 구별되는 동역회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한국 교회의 쇠퇴는 현실 비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소수이고 약할 때 오히려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쇠퇴하는 한국 교회는 역설적으로 군살과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본질을 더 잘 추구할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김반석** 청년 세대의 이탈은 시대 변화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교회의 책임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쇠퇴는 유럽 교회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세계 대전 같은 역사적 사건이 큰 원인일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자기 잘못으로 무너지고 있는 면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가 현재 젊은 세대의 고민에 제대로 답을 주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즘 청년 세대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 교회에서 해답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간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때 동역회 구성원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호흡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세상과 청년 세대는 다시 반응하고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윤현준** 저는 19세기부터 이어온 기독교 세계관 렌즈를 바꾸어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렌즈로만 이 시대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세계관의 담론을 성속(聖俗) 이원론 극복이라는 방향으로만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세속화 문제를 경계하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명

을 잘 감당하라는 가르침은 지난 '기세운'의 공헌이라고 봅니다. 창조신앙에 기반한 문화명령의 사명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잘못 적용되면, 세상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번영신앙으로 바꾸고, 세속화를 '삶의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오용도 심히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 캠퍼스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도 공적 예배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성례전이 약화된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면들이 없는지 다시 되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석종준**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재완** :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기는 끝났습니다. 저의 책, <나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2022)에서도 강조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한 다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실천방안을 다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히 겸손해질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고 적실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반석** 세대교체도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저 기성세대의 유지를 받들어줄 세대의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평가하려 하면 "건방지다. 어떻게 하나님의 유산을 비판할 수 있냐"라는 식입니다. 최근 제가 경상도 고향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 혁명 시대"라는 주제의 세미나 포스터를 보니까 20년 전 활동했던 목사님들이 그대로 강사로 올라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어떤 추억을 계속 붙잡고 가려다 보니까 지금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성장기 이후의 시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

각합니다.

**윤현준** 저는 3040 세대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싱글 청년, 아기를 둔 부모 세대인데요. 5060 세대는 “왜 남선교회 안 올라오냐”라고 압박하고, 20대 청년들은 ‘낄끼빠빠’도 모르고 왜 계속 같이 있냐”라고 합니다. 이 ‘낀 세대’를 한국교회가 잘 품고 설 자리를 시급히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끌어다 봉사시키려는 방향보다 이들이 왜 교회에서 힘든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제경** 첫째, 리더십 문제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은 평신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간의 초점은 리더십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훈련이 안된 분들이 이끌다 생긴 문제이기예 동역회가 한국교회 리더십 훈련을 10~20년 이상 내다보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가정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비혼율 증가 등.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동성에 문제도 가정 회복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쉬운 것은 동역회 학술대회에서 가정에 대한 이슈를 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만 잘하면 신앙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봉사에만 치중하다가 가정이 무너진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다음 세대로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석종준**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시니어 리더들(목사, 교수, 학자 등)에게 한 말씀씩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김재완** 학문과 신앙이라는 귀한 유산을 물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더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력에는 세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에게 열린 마음

을 가져주시고 발언할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이 의견을 청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현준** 우리 젊은 세대는 자기들의 고민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때로 방패와 보호막이 되고, 함께 눈물도 흘려주는 어른들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은 거짓말, 즉 우리 사회는 원래 이러저러하니 너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사회에 왜곡된 것을 조금이라도 덜 회개 만들어서 물려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때로 애정을 담은 질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제경** 감사하지요. 다만 시니어 세대가 만드신 문제는 가급적 당대에 잘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여러 신앙 단체들을 이끄시는 시니어들의 갈등으로 젊은 세대가 상처를 받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따르신다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그 무너진 갈등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계속 갈등의 역사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의 역사를 저희 세대가 이어가지 않도록,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석** 저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의미가 기존 것을 그대로 전수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신앙의 핵심은 계승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만들려는 생각은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을 ping장히 두려워합니다. 세대교체라는 것은 어찌면 기존 세대를 다음 세대가 밟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양적 성장기가 아닌 쇠퇴기라는 역사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있다는 것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 웨슬리 윈트워스 선교사 환송 예배



웨슬리(Wesley Wentworth, 한국명 원이삼, 1935~) 선교사님의 환송예배가 지난 9월 3일(토) 오후 2시 삼일교회 B관 1층 예배실에서 있었다. 선교사님이 1965년 한국에 처음 오신지 57년 만의 일이다. 지금까지도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서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그리스도인 지성 운동에 위대하고 풍성한 열매를 남겼다. 이를 증명하듯 환송 예배에는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각계각층의 한국인 제자와 지인 80여 명이

함께 했다. 그리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 교사운동, IVF, IVP, CUP, CTC, 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등 그의 제자들에 의해 설립되거나 주도된 15개 단체 명의 감사패 증정도 있었다.

웨슬리 선교사님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에서 나서 자랐고, 1953년 버지니아 공대 시절 IVF(Inter Varsity Fellowship)를 통해 주님을 영접했다. 학부 졸업 후에는 같은 대학 '위생공학'(sanitary engineering)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1965년 4월, 캔자스시에 있는 Black & Veatch라는 '위생공학' 업체를 다니던 중, 한국 파견 회사원으로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

웨슬리 선교사님은 특별히 북맨(Bookman)으로 유명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기독교 서적을 소개하고 공급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 지성인들 가운데 그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선교사님은 또한 최근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80이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현장에서 직접 대학원생들과 젊은 교수들을 수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응원하는 사역을 지속해 왔다.

지난 2022년 2월, 웨슬리 선교사님은 한국 사회의 인재 양성에 기여한 '특별 공로자'의 자격으로 과학정부청사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영구 정착하실 것을 예상하기도 했으나, 최근 악화된 건강 등을 계기로 지난 57년 동안의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향(미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앞으로도 그리스도인 학자들 사이의 네트워킹, 기독교 문헌과 기독교 교육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학자들에게 연결하는 일을 계속할 예정이다. **FAITH & LIFE**

##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발간에 참여하면서

이상민 (불문학교육 박사, 실행위원)



내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박동열 실행위원장을 통해서였다. 당시 동역회 기관지로 발행되던 <월드뷰>가 매달 집으로 왔는데, 거기에 실린 글들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박동열 실행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동역회에서도 <월드뷰>의 그런 정치적·이념적 편중성 때문에 고심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월드뷰>는 동역회로부터 독립해 나갔다. <월드뷰>가 동역회에서 분리된 이유는 <신앙과 삶> 창간호에 실린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새 기관지 발간에 즈음하여'라는 글에 잘 나와 있어 일부를 소개한다.

“<월드뷰> 분리 논의는 지난 2017년 다수의 동역회 회원들에 의하여 <월드뷰>가 동역회 기관지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 동역회 실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월드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편집위원장 제

도 제안,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보인 일부 편집위원의 교체, 기사내용의 정치적 균형 등을 요구하였으나, <월드뷰> 발행 체제는 동역회의 거버넌스와 분리된 채 유지되었고, 동역회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망한 다수의 정회원들이 동역회를 탈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실행위원회, 이사회, 임원 다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 5월 26일 총회에서 <월드뷰> 분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총회에서는 2019년 5월 까지 <월드뷰>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분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나는 동역회의 실행위원을 맡게 되고, 동역회의 새로운 기관지를 창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우선 기관지의 이름을 제안받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의 투표 결과 내가 제안한 <신앙과 삶><sup>1)</sup>이 선택되

1. <신앙과 삶>이라는 이름은 프랑스 사상가 자크 엘뤼(Jacques Ellul)의 주도로 발간된 프랑스 개신교 계열의 잡지 <Foi et Vie>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었다. 새로운 기관지의 이름은 정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기관지를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발간하느냐는 것이었다. 20명 이상의 편집위원이 선정되었으나 많은 인원이 매번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 기획 회의를 하고 편집 실무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편집위원 가운데 기획위원을 몇 명 뽑아 기획과 편집을 맡기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기획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창간호 발간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기획위원들이 여러 차례 모여 편집회의를 한 결과, 마침내 창간호의 전체 틀을 잡고 세부 목차를 구성하는데, 이때 이루어진 틀과 목차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어떤 단체의 기관지에서 드러나는 이념적·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 개신교 일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론적 근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개신교 일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거하는 커플에게도 부부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생활동반자법' 입안 시도,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의 입안 시도 등에 대해, 세계 공산화를 노리는 이른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부르주아의 '문화 패권'을 부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네오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와 유사한 법 제정의 근거나 배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그런 주장에서 나타나는 추론이나 추측은 어떤 철학 사상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이나 이론을 끄집어내어 이 내용이나 이론을 이 철학 사상의 전체나 이 사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삼음으로써 이 사상의 핵심과 본질을 곡해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곡해된 철

학 사상을 다른 것에 연결하여 그 배경이나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개신교 일부에서의 그런 주장을 억지로 뒷받침하려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때, 어떤 철학 사상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 마치 핵심과 본질을 잘 알고 있는 듯이 떠드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런데, 그런 병폐를 없애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과 명분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이를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현상이 개신교 일부에서 나타나는 실정이다.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신교 일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개신교가 더욱 '게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앙과 삶>이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도구로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신앙과 삶>의 특집 주제를 선정하고 필진을 구성하기 위해 기획위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월드뷰> 발간 당시 제기된 정치적 편향 문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자평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신앙과 삶>이 동역회 회원 다수의 목소리를 담는 기관지로 계속 거듭나야 하고, 동역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신앙과 삶>을 통해 다양한 담론의 제시 및 활발한 의사소통이 동역회 모든 회원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상민**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불문학교육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프랑스 사상가 자크 엘릴의 여러 저서를 번역했으며, 엘릴의 사상과 관련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저서로는 <자크 엘릴,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권>(공저), <기술, 선전, 정치, 혁명> 등이 있다.

# 하나님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임승찬 (카이스트 컴퓨터그래픽 전공 박사과정)

어느 주말, 유튜브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기 전에 나오는 광고에서 한 어린아이가 굶주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나무껍질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한참을 멍한 상태에서 그 광고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문득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저 불쌍한 아이에게 커다란 고난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신만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그것으로 인한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문제와 고난의 순간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나에게도 이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 물론, 하나님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와 고난이 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커다란 문제 대부분은 인간의 타락과 성취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이전보다 빠르게 변화되어가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게 된다. 내가 일하고 있는 대학원에서의 연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에서의 과제와는 다르게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의 특정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한 후, 연구자가 제시한 해결책이 이전 연구들에는 찾

아볼 수 없는 기여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당연히 그 해결책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연구자가 제시한 해결책으로 인해 현재 세상 속에 존재한 여러 제한된 것들의 일부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대학원생에게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 가운데 힘듦이 있고,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확신을 하기까지의 고뇌가 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나를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대학원생들도 이러한 문제와 고난의 과정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 물론 일하는 과정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연구하는 분야의 컴퓨터 그래픽스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비록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커다란 분야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작은 연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길 원하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가상현실과 같이 미래의 기술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미래의 기술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내게 큰 축복이다.




하지만,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힘든 과정이다. 예수님도 사역하셨을 때 혼자 다니시지 않고, 바울도 선교했을 때 혼자 다니지 않았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힘쓰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한 문화기술대학원에서의 신우회 활동을 통해서 각자 처한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현재 기독교 세계관 동아리(RACS) 활동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 사회의 문제점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대학원 생활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내 신앙심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전투의 현장과 기도의 현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루하루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와 영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찌면 자신의 권능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죄를 짓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신다.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거나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

을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길 원하신다. 아담 시절의 죄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릴 통해 다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신다. **FAITH & LIFE**



 글쓴이 임승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컴퓨터그래픽 전공 박사과정 학생이다. 현재 카이스트 기독교 세계관 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for Creation & Science)와 문화기술대학원 신우회 대표로 섬기면서, 여러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과 매주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 디지털 휴먼을 연구하면서 미래 디지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전 오메가교회 청년이다.

##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

김영윤 (중앙대 성악과 4학년)

나는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인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27살 청년이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부자' 관계가 될 수 있을지, '절친'이 될 수 있을지 수없이 하나님께 묻고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매일 큐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은혜, 깨달음을 캠퍼스에서 연결된 여러 청년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고 있다. 이것은 캠퍼스에서 드러나지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21살 때, 수련회 기도 시간에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고, 곧바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가치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즉시 결단한 적이 있다. 갑작스러웠기에 그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감당할 못할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셨다. 뜨거웠다. 그러나 그 뜨거움은 나의 원함과 달리 오래 가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청년들에게도 반복되는 것일까? 이것이 궁금했다. 그러던 중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성악 레슨 선생님이로 만난 분이다. 그분은 내게 처음으로 큐티와 성구 암송을 소개해 주셨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우선순위로 큐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그 내용을 보내주셨다. 당시 나는 한창 빠져있던

심적 어려움과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그 말씀 나눔으로의 초대를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매일 열심히 잘되어지지는 않더라도 응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 몸에 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에, 처음에는 이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 채로 시작하였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나눔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말씀을 섭취하고 매주 암송을 하며 삶에 적용하고 나의 마음 판에 말씀을 새김으로써, 하나님과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왜 교회에서는 매번 큐티를 하라고 할까? 왜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에 가서 뜨거움을 경험해도 빈번히 금방 식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에 대한 나쁜 답을 찾으려 하셨다. "아! 모닥불에 불을 지피면 다음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계속해서 넣어주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마 4:4)라는 말씀의 의미로 이해하자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다시 은혜를 주셨고, 기도가 그날그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은 매일 뵈어야 한다는 것도 은혜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큐티, 곧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



니고,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사랑하고, 여러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라는 말씀을 왜 주셨고, 왜 큐티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방법인지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셨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고, 얘기하고, 식사 교체하고,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야 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아바 아버지, 친구로 불러주셨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마 6:6-8).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절친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는 그저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닌 내가 직접 하나님과 살아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낸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었기에 살아낸 이야기만을 전하기로 하였다. 처음 큐티를 보내주신 그 선생님처럼 나도 그렇게 한 명 한 명 연결이 되어, 어느덧 10명에 가까운 청년들에게 매일 아침 나의 큐티를 메모해서 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보낸 큐티에 답장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다. 이 역시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삶의 진로, 장차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편히 맡길 수 있게 하셨다. 전공 연습을 할 때도 항상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연습하고,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 또 내가 잘사는 길은 우선 남을 잘살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루하루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모두 빼야 가장 맞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드러나며, 그것을 이루시는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음도 깨달았다. 나는 매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편히 일하시도록 완전히 내어드린다. 전심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 또 이것이 모든 때와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섬길 기회를 주신 사람들에게 큐티를 계속 나누고 암송을 독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애하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지 더 풍성히 누리며 전하고 싶다. 이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이다. “큐티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자기 욕심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애하는 지혜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FAITH & LIFE



#### ✍ 글쓴이 김영운

중앙대학교 성악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중앙대학교 찬양 선교단에서 활동하였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기존의 사회과학부 전공에서 전향하여서 주신 달란트에 맞게 성악이라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되었다. 성남 상대원침례교회 청년이다.

# MBTI, 그리고 교회 : 안전지대를 찾아서

이호준 (조이선교회 서울대 간사)

최근 교계 여러 곳에서 청년 세대 관련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열고 있다. 선교단체 간사로서 대학생을 만나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은 감사한 일이다. 다음 세대와 대화를 하려면 그들을 알아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정작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바로 MBTI로 대표되는 성격유형 검사이다. 청년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MBTI 결과를 공유하며 이와 관련된 ‘밈’(meme)도 끊임없이 생산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며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청년들과 SNS에서 DM(Direct Message)을 하며 공감 하트를 누르는 30대 직장인(간사)으로서, 이 트렌드가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을 나눠볼까 한다.

청년들은 왜 MBTI에 열광할까? 짝은진 교수는 청년 세대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며 타인을 알아가는 대신, 간편하게 규격화된 정보를 얻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고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본다.<sup>1</sup>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실 가능만 하다면 누구나 그러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이들은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이며, 또 사람을 만나기보다 혼자 있는 비대면 시

대를 지낸 세대이다. 그러니 미스터리 같은 인간관계를 단번에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검사가 이 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마냥 이상하지만은 않다. 이 메커니즘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도 해당된다.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성찰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나 MBTI는 이러한 수고를 제한한다. MBTI와 같은 성격검사의 등장은 몇 번의 터치로 자신과 타인을 알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 하지만 그러한 확신 속에서도 한계가 있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타인의 성향을 안다 해서 각자의 허물이 이해되고 공출히 여기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MBTI 열풍은 이 지점에서 흔들린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도, 타인에게 너그럽지도 못한다. 오히려 성격유형에 따라 벽을 쌓는다. 상호 이해와 사랑보다 자기방어와 타자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 그렇기에 이 안에는 평화가 없다. 평화는 사랑에 근거한 용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역시 복음이 답이야”라고 성급히 결론에 도달하지 말자. 우리는 물어야 한다. 교회는 개별적 존재로서 ‘용납’ 받기 원하는 자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성향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있는가? MBTI 성향 중 ‘외향성’과 ‘내향성’의 관점에서 보자. 복음주의 기독교는 신앙의 좋고 나쁨을 ‘관계적 열정’으로 평가하려는 습관이 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친화력이 좋아야 하고 언변도 있

1. 짝은진, “너 MBTI 뭐야”. <좋은나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2.06.27



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리더십과 다양한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성실함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내향적인 성향으로 이런 분위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경우 그는 어려운 사람, 적응 못한 사람, 나중에는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그 내향적 성향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성향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경험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말이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성찰은 필자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필자가 담당하는 공동체는 오랫동안 외향적 성향이 강한 공동체였고 내향적 지체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한 멤버가 고충을 토로했으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그 친구는 결국 소외되어 공동체를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었으나, 이는 공동체를 향한 그의 진실된 사랑 때문이었지 외향적인 우리의 적극성 때문이 아니다. 외형적 모습이 답은 아니다. 그리고 내향적 모습이 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지 않는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소개팅 자리에서 MBTI부터 얘기하는 이 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왜 이것에 열광하는지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

선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물어야 한다. 다양한 성격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인가? 혹시 내향적 사람들이, 혹은 역으로 외향적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든 곳은 아닌가? 특정 성향의 사람에게 편한 모습을 절대적 선으로 획일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의 경험을 물어보자. 그들에게 이 공동체가 안전지대인지.

혹 이런 연유로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초대하며 환대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혹은 노예와 귀족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면, 2022년 현재는 어쩌면 E와 I가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채 즐겁게 모이는 모습이, 혹은 N과 S가 함께 앉아 공동체의 방향을 논하며 서로를 더 낫게 여기는 모습이, 혹은 F와 T가 함께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상대의 권면을 듣는 모습이 이 시대에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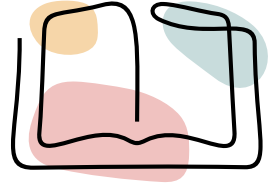


 글쓴이 이호준

조이선교회 서울대 간사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재학시절 선교단체 조이선교회에서 활동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다. 동시대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맞는 복음의 언어를 고민하며 찾아가고 있다.

## 하나님이 한 청년을 택하시고 빚어가는 방식

이충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직원)



나는 평범한 청년의 때를 보냈다. 자기 의(義)로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9, 11).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실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의(義)만 있던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택하셨고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시험 준비를 하던 중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엄마는 처음 진단받은 대학병원에서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고 위치가 위험한 곳이라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내졌고, 간신히 수술은 받았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나는 병간호를 하며 취업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시험 준비는 마냥 미루어졌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신, 자기 열심을 더 댈으로써 이 광야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한 고집스러운 내 자아가 반드시 깨져야 한다고 보셨던지 ‘갑상샘 항진’이라는 질병을 주셨다. 그런데도 나는 그 와중에 질병을 두려워하고 걱정만 했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다. 그러자 합병증으로 ‘갑상샘 안병증’이

추가 발병하였다. 나는 그 사건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질병을 겪어야 했다. 호르몬 조절이 되지 않아서 감정조절이 잘 안 되거나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동시에 겪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때쯤 나는 영, 혼, 육 중에 혼과 육이 쇠약하여져도, 남은 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야 다른 것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 하지 않았던 완악한 자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교만했던 죄성(罪性)이 깨달아졌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교회’의 김양재 담임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 겸손한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도 깨달아져, 그동안 겸손한 척을 하며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오전에 급식실 설거지, 저녁에 식당 일을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려니 건강에 다시 무리가 왔다. 안와감압술을 위해 일도 그만두었지만, 병들의 여파는 그치지 않아서 수술 후에도 바로 재발이 되는 등 고난을 계속 겪어야 했다. 따라서 나는 처음에는 “왜 삶이 이렇까”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남아있는 죄성을 끝까지 털어내기 위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



전히 서도록 회개하게 하신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열심을 내어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다는 세속적 노예근성을 끊어내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셨던지, ‘대상포진’과 ‘뇌수막염’이라는 질병까지 허락하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엄마가 다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장기간 입원까지 하게 하셨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버지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는 사건을 겪게 하셨다. 물론 나는 인간에 대한 배신과 실망으로 크게 괴로웠다. 앞날이 막막했고 두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갑자기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다.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에 이 언약을 편히 믿기는 어려웠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후 나는 2차 ‘안와감압술’을 받았고 수술이 잘 돼서 고난도 이제는 다 끝이 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자 나의 지독한 죄의 뿌리들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왔다. 세상 욕심을 다시 내며, 음란, 교만의 죄성도 다시 발현되었다. 또다시 음란물도 보았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셨고, 곧바로 안병증을 재발하게 하셨다. 참으로 괴로웠다. 다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 힘든 날들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간섭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아빠의 모습 안에서 나의 끊어지지 않는 음란한 죄성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가 나와 별다른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나의 비참한 죄를 보게 되니 얼굴을 들 수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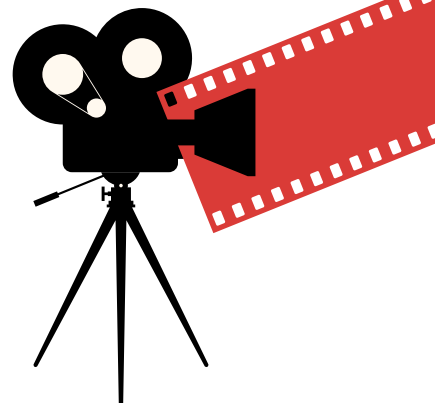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른손가락 인대파열로 펜도 잡지 못하게 하셔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만 직업의 사명도 준비하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셨다. 필기시험 3일 전에는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합격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고, 면접 2일 전에는 요로결석으로 응급실에 입원하고 ‘파석술’을 받고 면접장에 들어가게 하심을 통해서도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라는 말씀을 새삼 깨닫게 하셨다. 면접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고 면접관의 질문에 그 기간에 교회에서 양육 받을 때 들었던 말씀 중 기억나는 것만을 가지고 대답하게 해주셨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지금은 법무부 연수원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완악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낮추시며 여러 사건을 통해 택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조차 송구스럽지만 나는 간증을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어리석고 우매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서서히 여러 훈련을 통해 빚어가심을 믿기에 앞으로 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것이다. 이 모든 삶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충남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외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현재는 1세대 신앙인으로서 우리들교회 청년부 지상목 목장의 부목자로 섬기고 있으며, 최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연수 중이다. 우리들교회 청년이다.



# 승리, 어떤 압도적 승리를 위하여 - 영화 <한산>(2022)에서 얻는 영감 -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 영감(靈感)의 출현

영화 <한산: 용의 출현>(2022, 김한민 감독, 박해일 주연)은 한눈에 보아도 이순신 관련 작품임이 분명하다. 왜군의 침략에서 조선을 구한 민족의 영웅. 그에게는 명장(名將)이라는 칭호도 부족하려니 성웅(聖雄)이라야 맞을 듯 하다. 역울한 누명과 모함을 입고 삼도수군통제사 계급장까지 박탈당한 상황에서 내적 분노와 외한은 속으로 삼키고 그저 조국과 백성을 구하기 위한 절대 헌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역사의 한 장면이 조선 시대에 펼쳐지는 듯 하다. 이순신에게서 예수님의 이런 극적이며 데칼코마니를 읽게 되다니. 역사 속에 감추어진 영적 알레고리(Allegory)는 깊고도 깊다 하겠다.

## 임진왜란, 일본과 조선의 차이

임진왜란(1592-1598)은 일본의 일방적 침략으로 시작된다. 일본 최고지배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은 대륙의 나라 명나라를 치므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려 하였다. 조선은 길을 내라는 태도였다. 이에 조정은 통신사를 보내 정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두 관리는 정반대로 보고했다. 황윤길은 일본 침략설을, 김성일은 그 반대였다(김성일은 실제 왜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방어전에 참여하다 전사한다.) 그때까지 일본은 전국시대를 지나면서

100년 가까이 전쟁을 치렀다. 전쟁을 무수히 치르면서 전술이며 무기(조총) 등이 발달한 상태였고, 다이묘들은 호전적 분위기에 도취되어 조선 약탈로 땅과 전리품을 챙기고자 하였다. 그 반대로 조선은 1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 왕조를 중심으로 유생들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며 백성을 다스려 온 지 백년 세월. 북쪽 오랑캐, 남쪽 왜구들이 출몰하기는 했으나 그때마다 물리친 경험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일본이 강성해 가는 과정에서 조선의 대일본 인식은 변변치 않은 작은 섬나라 왜(倭)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 부산에서 한양까지 단 20일

부산을 침략기지로 삼은 왜군은 동래성을 격파하고 북진하기 시작했는데, 상주, 충주, 용인을 지나 한양까지 진격하는 데는 단 20일이 걸렸다. 이 과정에 조총의 위력에 공포감을 느낀 관리, 관군들은 도망가기 일쑤였고,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은 결정적 전략 실패로 참패하고 말았다. 장군에 어울리지 않는 전술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아군 몰살이라는 비극을 가져왔다. 그후 조선의 왕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길에 오른다. 준비되지 않은 나라에 닥친 고난 앞에서 그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도 없으며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늘'이 이끄시는 사람, 그의 전략**

이순신 장군에게 오직 한 가지 생의 목표가 있다면 조선의 구원에 있었다. 왜군에게 짓밟힌 내 나라, 그리고 살육당하는 내 백성을 버려둘 수 없었다. 백의종군하며 전투에 온 힘을 기울인다. 다시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출정에 앞서 군사들에게 명한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침략자 왜군의 배는 수백 척, 살기등등하다. 자신에게는 수십 척, 그러나 승전예의 의지는 하늘을 찌른다. 깊은 나락에 내려갔다 온 그 깊이만큼 장군의 승전 의지는 강했다. 물러서면 나라와 백성이 죽는다. 물러설 수 없다. 견내량 바다 저쪽에 왜군이 숨어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잠 24:6) 이순신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전략을 궁리한다. 견내량에 흐르는 급물살을 활용할 것, 왜군이 백병전을 못하게 거북선을 만들 것, 포대를 설치하여 조총 유효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집중포화로 배를 격침시킬 것, 학익진을 십분 활용할 것 등 승리를 위하여 수군의 사기를 북돋았다. 모두가 장군에게 신뢰를 보내며 그를 따랐다.

**우리에겐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

마침내 한산대첩이라 불리는 전쟁에서 우리 수군이 승리한다. 병사가 외친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장군이 말한다. "우리에겐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 그렇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전투를 치른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 자기 죄와 실수로 인해 핍박 당하지 않아야 하리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벧전 2:20),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영적 대첩(大捷)에 당당히 나서자. 말씀의 전략으로 싸운다면 '세상'을 이기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얻으리라.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 기독교 청년 작가가 살아가는 법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예술 속에 구현하려는 비전으로 창립된 '아트미션'(회장 김정희)이 올해로 24주년을 맞았다. 기독교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아트미션'은 현역 작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올해는 VR 전시, 시민 갤러리와 취약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특별전을 가졌다. 이와는 별개로 회원 각자는 개인전을 비롯하여 미술계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아트미션'에 속한 청년 작가들은 후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오성, 언약식, 41x32cm, acrylic on canvas, 2018

이스라엘 선교를 꿈꾸는 이오성 작가는 선교의 비전 못지않게 예술적 열정도 뜨겁다. 이오성은 요한계시록의 이미지 등 성경의 장면을 특유의 화풍으로 묘출해오고 있는데, 근래에는 자신의 작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고민 중이다. 일반인들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품을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성경적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동시대 문화에 눈높이를 맞추어 나갈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



이혜성, Eternal life, 162x97cm, oil on canvas, 2014

이혜성 작가는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작품 활동에 여념이 없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며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치관이 삶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러한 가치관은 어른이 되어 작업을 할 때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그는 들에 핀 백합화, 공중의 참새까지도 돌보시는 주님이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내용으로 작업해오고 있는데, 자연을 모티브로 삼아 일반인들과 쉽게 교감을 나눈다고 한다.



장지희, You and I, 80x42x38cm fabric collage, 2019

장지희 작가는 올 여름 개최된 일본 나고야 초대전을 비롯해서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약 중이다.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그는 기독교의 정신을 현대의 조형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는데 주력한다. 그의 작품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치, 패브릭 콜라주, 회화, 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며 빛 속에서의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삼는다. 인간의 관계성을 동그라미와 세모의 대조, 그리고 빛의 도입 등으로 상징화하며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기독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현진 작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남편 서영원 작가와 함께 작품 생활을 펼치고 있다. 김현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즐겁지만 작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업을 하는 순간이 가장 보람되고 기쁘다고 한다. “아름답고 강한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림이 되었다”라고 한다. 작품전이 열리는 전시장을 방문했을 때 작가는 때마침 감상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었다. 방문객들을 일일이 맞아 주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활동하는 곳은 허무주의, 유품론, 진화론 등이 만연하는 예술계이다. 근래에는 맘몬주의가 미술계를 우악스럽게 장악하고 있는 양상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 필자는 이들이 문화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미래가 나쁘지만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이같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래 기독교 단체에는 청년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유인즉 젊은 작가들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속감을 가질 여유가 없고 이에 따라 단체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작가를 기독교 예술 사역에 참여시키려면 약간의 배려가 필요하다. 전국의 미술인들이 모인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회장 방효성)에서는 별도의 ‘청년분과’를 신설하고 그들만의 발표 기회를 주는 등 차세대를 밀어주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 작가

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60, 70대 위주에서 세대 폭이 넓어진 현상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현재 국내에는 청년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백여 개를 상회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일정한 기간의 작업실 제공과 개인전과 단체전 개최, 비평가 매칭, 도록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데 기독교 예술 단체는 일반 단체에 비해 이러한 기회 제공이 전혀 없으며 이만한 지원을 하기에 도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독교 세계관을 표방하며 지금까지 집단을 이루어 사역해온 데에는 적극적인 발언과 참여를 통해 세상 문화를 쇄신하고 창조질서와 문화명령을 수행하려는 기독교 작가들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견작가들로부터 청년 작가까지 이런 간절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인 눈으로 주어진 환경을 돌아볼 때 기독교 예술 사역이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청년 작가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속에서 우리 문화와 자신을 통찰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일터에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우리의 삶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런 수고의 결과들이 폐기되지 않고 상달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예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현실이 미래에 투영될 것을 확실하며 오늘도 공기가 매캐한 거리로의 외출을 위해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FAITH & LIFE



####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 당신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조예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당신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저술한 톰 라이트가 이 책을 접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부활’이라고 답하며, 그 소망으로 인해 놀랐다는 심정을 담아 이 책을 열어가고 있다.<sup>1</sup>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30년간 교회에 출석해 온 필자 역시 부활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명제를 공리처럼 받아들여 왔다. 경쾌한 템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부활절이 되거나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선포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면, 부활이라는 승리가 필자의 것이라도 된 것 같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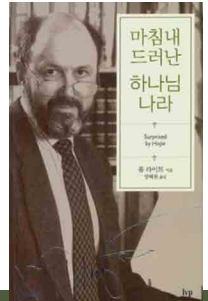
그러나 필자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막연한 소망은 필자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뒤로 차갑게 식어갔다. 부활이 주는 소망을 품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의학적으로 어머니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머니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소망은 내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따름이다.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린 뒤에 실의에 빠져있던 필자에게 저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논증했다.

1. 그래서 이 책의 원제는 <소망으로 인해 놀라다 Surprised by Hope>였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부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저자는 기독교 사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 플라톤주의로 인해, 우리가 가진 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천국을 궁극적인 영혼의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 부활 사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한다(51-2면). 저자는 부활은 영혼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부활의 때가 오면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날이 올 것이라고 담대히 주장했다(254-5면).

이어 저자는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논증했다. 그는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안식처에 간다는 미래의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밭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293-6면). 부활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물질의 구속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며(323면), 이는 정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전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325-52면). 나아가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임을 확실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늘의 생명으로 식민화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435면).

사후 천국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활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으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톨 라이트 (지은이) | 양혜원 (옮긴이) | IVP | 2009

로 연결될 수 있는지 논증했다는 점에서 저자의 주장은 무척 설득력 있다. 특히 교회와 세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던 부활관을 보다 총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저자가 제시하는 실천적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저자는 부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세례’, ‘성만찬’, ‘기도’, ‘성경’, ‘거룩’, ‘사랑’의 훈련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405-30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앞서 부활에 대해 거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에 비해 우리에게 던져준 실천의 방향은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 아니라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활이 필자에게 커다란 소망을 안겨주지는 못했다는 점 역시 못내 아쉬웠다. 특히 저자는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는 소망을 밝혀내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죽음 이후에 겪게 될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예컨대, 저자는 낙원에 대한 설명에서 결국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기대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제시하지만(274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낙원에서 어떻게 재회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부활 이후에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육체를 얻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지만(254면), 부활 이후 갖게 된 육체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그려주지 않는다. 이를테면 장애인이 부활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신령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요컨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저자는 부활이 단순히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으로 종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 이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논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작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책에서 느껴지는 아쉬움과는 별개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 모든 것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주실 것을 안다”라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의 겸허한 고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 아닐까? **FAITH & LIFE**



**글쓴이 조예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부 시절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학생대표를 역임했다. 학부 때 선교단체(IVF)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는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모임 멤버이다. 현재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칠정교회(예장통합) 청년이다.

# 성광교회의 '성광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소개

최형순 (인천 성광교회 전도사, 기독교세계관학교 아동부 담당자)



2년 전 성광교회는 임형빈 원로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40대의 남세 주담임목사님이 부임하셨고, 특별히 '코로나 19' 시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양육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결정하였다.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를 우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게 되었다. 따라서 1년 전 40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 강의가 진행되었다.

그 후 기독교세계관학교 부모교사 양성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대상자로는 자녀를 '성광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에 보내는 어머니,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을 섭외하였다. 현재 '성광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는 3년 6학기 과정이다. 3년 과정이다 보니 처음에는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부

모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18명의 학생이 모집되었고, 지난 3월 개강하여 지난 7월 한 학기를 마치게 되었다. 현재 세계관학교의 소그룹은 저학년 3명씩, 고학년 4명씩으로 편성되어 있다.

'성광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선생님들의 중보기도로 시작한다. 기도 후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맞이하고, 10시 30분부터 기도와 찬양을 시작으로 강의와 소그룹을 반복하고, 소그룹과 전체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와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그날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주중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할 과제를 내준다. 또한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을 보낸 후 피드백을 하고, 주교재를 이용하여 다음 주 강의를 미리 나눈 후 중보기도로 마무리한다. 1학기를 마치면서 받은 은혜는 선생님들이 먼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으로 임하다가 학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지쳐가는 모습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뎌내고 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중보기도 덕분이라 믿는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많은 교회와 부모님들의 고민인데 기독교세계관학교는 신앙교육을 교사와 교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신앙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자녀들 스스로 질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학교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총체적인 양육이다. '하,이,세!' 즉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 '하.영.공!'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 이 마음을 품고 자라가는 성광교회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곳곳마다 변화와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소감문

## ‘성광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1학기를 마치며



이윤아  
(별빛아동부 6학년)

세계관 학교에서 배운 ‘하이세!!!’ 즉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과 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학교에서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영공!’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욕심을 내어 다른 사람보다 잘 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더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이뤄지길 소망해봅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들 중 터키 젤리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가족 일정으로 빠져서 너무 아쉽고 좀 속상했는데 전도사님께서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터키 젤리를 먹어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옷 꾸미기 활동은 하얀 바탕에 작은 문구 하나를 적어 완성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고,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만들었던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세계관학교 때문에 주말에 친구들과 놀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조별 활동을 할 때 너무 재미있었고, 다음 학기에도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면서 만들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늘 아낌없이 사랑해주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김미경  
(별빛아동부 4학년  
홍하늘 학생의 학부모)

나도 아이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시작하였지만, 토요일에도 쉬 수 없게 되며 투정하던 아이도 막상 학기 중에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의 때마다 아이들은 주제를 놓고 각각의 자유로운 생각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의견을 모아 발표하며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인상 깊었다. 또한, 우리를 ‘엄마 선생님’, ‘아빠 선생님’이라 호칭해주는 위트 있는 유경상 교수님과 함께하는 매주 화요일의 시간은 나에게 대해 내 아이에 대해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와 아이는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이었지만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은 더 많은 시간과 기도로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너무 감사했으며, 다음 학기에는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1학기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는 ‘하.이.세!’라는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 넣으며 일상의 매 순간 ‘하.이.세!’를 실천하리라 다짐해 본다. 나의 아이는 1학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그날의 과제를 학교 가기 전까지 모두 마치고 여유 있게 등굣길에 오른다. 올해 초만해도 몇 번이고 지각을 해서 나를 애태우던 그 아이가 세계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영.공!’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아이가 된 것 같아 보고 있으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2학기에는 어떠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길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린다.

##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3)

### - 신(新)칼뱅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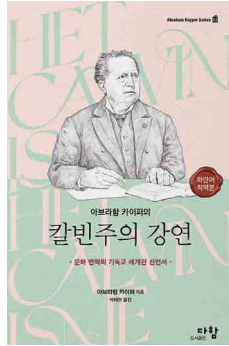


19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칼뱅주의 부흥 운동은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직접적인 원천이다. 칼뱅주의는 ‘삶이 곧 종교’(life is religion)라는 원리에 따라 문화를 성경의 진리에 따라 변혁하려는 열정을 특징으로 한다. 그 전통을 되살려내려는 운동의 중심에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있었다. 그는 네덜란드인 평균 신앙보다 ‘작은’ 사람이지만 정통 신앙을 회복시킨 영적 ‘거장’이었다. 더 큰 업적은 그 신앙에 함축된 문화 변혁적 세계관을 드러내어 삶을 바꾼 실례를 남긴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도 그 역사를 본받아 삶을 성경의 진리에 더 부합하도록 만들려는 실천적 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을 4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한다.

칼뱅주의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그런 신앙 회복 운동 및 사회·문화 변혁을 위한 필수적 요소였다. 카이퍼는 자신이 제시하는 세계관이 철학 체계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을 위해 그는 이미 통용되던 ‘세계관’이라는 말 대신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life-and-worldview, levens-en-wereldbeschouwing)이라는 다소 길고 어색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철학이나 이념 체계보다 훨씬 근본적인 종교적 진리로 인식했다. ‘종교적’이란 철학이나 이론이 머무는 이성적 논의의 차원보다 훨씬 깊은 차원, 즉 삶의 궁극적 토대가 세워지는 차원의 진리요 삶의 안목을 말한다. 이렇듯 그는 성경적 진리를 가장 순수하게 보존해온 체계라고 확신한 칼뱅주의가 일종의 철학 체계일 뿐이라는 인식을 막고자 했다.

칼뱅주의는 하나의 신학 체계일 뿐이라고 여겨지지도 말아야 한다는 점은, 1889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카이퍼가 행한 ‘스톤 강좌’에 잘 드러나 있다. “칼뱅주의는 교회제도에 그치지 않고 ‘생활체계’(life-system)로 발전했으며 교리의 구성을 위하여 진력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과 세계관을 창조했다.”라는 것이다. 카이퍼는 “칼뱅주의가 전적으로 교리적이고 교회적인 운동을 대표하고 있다는 그릇된 관념을 뿌리 뽑으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칼뱅주의 강연’은 기독교 세계관의 교과서와도 같은 고전이 된다. 카이퍼는 이 강연에서 세계관으로서의 칼뱅주의가 현실의 종교, 정치, 학문, 예술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망을 제시하는지를 다루었다. 칼뱅주의가 역사적으로 정통인 진정한 기독교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학문의 삶 그리고 예술과 미래의 삶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다시금 세워져야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함을 역설했던 것이다.

칼뱅주의가 삶 전체에 관여된 생활 태도로 조직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도 바로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칼뱅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우주론적 원리에 기초한 포괄적 삶의 조망을 제시한다. 종교는 삶의 일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이 곧 종교”이며, 세상의 단 한 뼨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벗어나는 곳은 없다. 종교의 특성은 구속적이어야 하지만 결코 현실도피적이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카이퍼는 ‘칼뱅주의와 과학’ 논의에서 불신 세계의 학문적 유산에 대해 존중을 표했다. 이른바 그의 시그니처 이론인 ‘일반은총론’이 그 근거이다. 하지만 구원받은 의식과 그렇지 못한 의식은 학문 활동에도 드러나기에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다수의 학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신학적 틀에서 또 다른 대명사는 ‘대립’(antithesis)이다. 그 차이는 불신자가 세계의 상태를 ‘정상적’(normal)으로 보는 반면에 신자는 죄악 세상의 상태를 ‘비정상적’(abnormal)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결국, 그는 자연과학에서도 학문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학문의 다원성이 상식화된 포스트 모던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미리 보여주는 듯하다. 실제로 카이퍼의 세계관 논의에는 자신의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요즈음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신학’과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이다. **FAITH & LIFE**

####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3차)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3차)가 ‘나의 일터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8월 13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온라인(Zoom)에서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다양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자들이고,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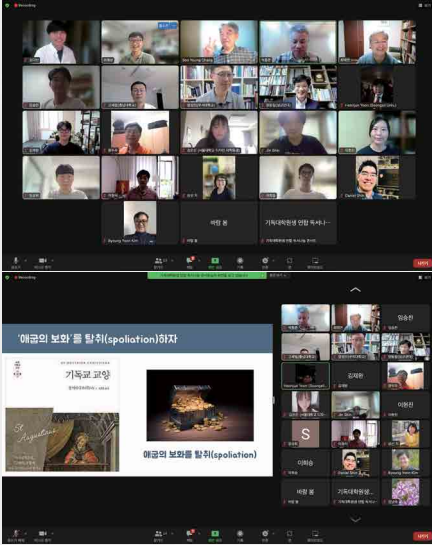
는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 연구와 대중운동의 가치를 공감하는 분들이다. 현재 전체 구성원 30명 가운데 30대 학자가 19명이나 되어, 다음 세대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 온 선배 학자들의 가슴을 베풀게 했다. 모임의 시작은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동역회 이사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등 동역회 선배 학자들의 순서였다. 이 분들은 ‘간담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격려와 응원의 말씀으로 ‘간담회’의 가치와 의미를 더 빛나게 해주었다.



지난 4월 30일 2차 간담회에 이어서 전공이 다른 다섯 분의 학자가 자기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이 연구 분야가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약 7분에 걸쳐 나누는 이후, 함께 질의응답을 하면서 교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훈 박사(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안재호 박사(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 윤준준 박사(숭실대 기계공학부), 홍승현 박사(서울대 불어교육과), 최우성 박사(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순서로, 모두 다른 전문 영역에서 어떻게 각자의 삶과 신앙의 일원화를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복된 자리였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세상과 신앙의 영역으로 이원화하지 않기에, 고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저서 <완전한 진리>(내시 피어시), ‘과학과 신앙’과 관련된 저서 <우주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세계>(알리스터 맥그래스)을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매주 독서 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다음 4차 간담회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FAITH & LIFE**

## 제3회 기독 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지난 2022년 8월 27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1회 콘서트(2021년 7월 30일)와 제2회 콘서트(2022년 2월 19일)에 이은 제3회 기독 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가 온라인(zoom)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있었다. 부분 참여자를 포함 약 40여 명의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경희대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최근 과학에서 '뇌 과학', '유전자 결정론' 등으로 기독교에 여러 가지 측면의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몸과 마음'의 관계 또는 '몸과 영혼'의 관계를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콘서트의 준비 과정은 2022년 6월 초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각 캠퍼스에서 추천을 받은 5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러 차례 사전 조율과 줌(zoom) 미팅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콘서트에서 함께 나눌 책으로는 영국의 복음주의

의 신경과학자 말콤 지브스(Malcolm Jeeves)의 <마음, 뇌, 영혼, 신>(IVP)을 정해서 각 캠퍼스에서 미리 독서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8월 27일 콘서트 당일, 참여자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1부는 5명의 발제자를 통한 <마음, 뇌, 영혼, 신>의 정리와 자유 토론, 2부는 2명의 자유주제 발제자를 통한 특강과 자유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신국원 박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의 대표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의 전체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홍성욱 박사(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마음, 뇌, 영혼, 신>의 내용을 양동일(성균관대 교육철학 전공 박사수료 / 1, 2장), 이희승(서울대 뇌인지과학 전공 박사과정 / 3, 4, 5장), 김다빈(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 9, 10, 11장), 임승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 12, 13, 14장), 조예성(카이스트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석사과정 / 14, 18, 19장)이 발제한 후 자유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2부에서는 윤현준 박사(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석사)이 자기 저서 <나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이레서원, 2022)를 소개하고, 또 이정식(경희대 문화콘텐츠 전공 석사과정)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 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후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모든 순서는 장수영 박사(포항공대 산업기술경영공학과 교수)의 마침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모두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영혼들이다. 준비위원 신진(고든콘웰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콘서트 줌(zoom) 호스트와 '타키퍼' 역할을 맡았던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 석사)의 섬김도 잊을 수가 없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1980년대 초 영성과 지성의 균형 잡힌 제자도를 지향하는 캠퍼스 청년들의 독서 스터디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시작과 통로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임원변경 '감사' 서울시 교육청 승인

김태황 (감사, 명지대 교수, 2022. 08. 22 ~ 2024. 08. 21)  
문준호 (감사, 코아시아옵틱스, 2022. 09. 11 ~ 2024. 09. 10)

## 문서선교사 웨슬리 웨스트워스 환송예배

지난 57년간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전심으로 섬긴 웨슬리 웨스트워스 선교사의 미국 귀환 환송예배가 9월 3일(토) 삼일교회에  
서 있었다.

\* 관련 언론보도(국민일보) : - <https://naver.me/GNUdsnPr> & - <https://naver.me/5xnYWNWw>

##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 개최 안내

주제 : 양극화에 갇힌 공동체성과 기독교

일시/장소 : 2022년 10월 29일(토) 10~18시, 백석대학교(서울 캠퍼스) 교육관 10층 아트홀

주제강의 1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 / 이국운 교수 (한동대 법학부)

주제강의 2 정치 이념 양극화와 경제성장 / 강영호 교수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주제강의 3 한국 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공동체성 / 김성원 교수 (서울신학대 신학과)

\* 대학원생, 경제경영, 교육, 사회과학, 신학, 의료보건, 인문학, 자연과학 등 분과 논문 접수 중이다.

## 2022년 그리스도인 소장학자 간담회(3차)

8월 13일(토) 오후 8시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간담회가 '나의 일터 이야기(2)' 라는 주제로 온라인(ZOOM)으로 개최되었다.

## 제3회 기독 대학원생 독서 나눔 콘서트

8월 27일 오후 1~5시까지 '몸과 마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ZOOM)으로 개최되었다.

##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27권 3호 (2022년 9월 30일) 발간

14편의 논문 투고 중, 최용준(한동대 교수)의 논문 등 총 9편의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MEV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석중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썬아트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총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스마투스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곤(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응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 **VIEW**(전성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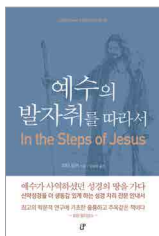
1)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기 바란다.

▶ **CTC**(유경상 대표)

- **어린이 교육** : 온오프라인 기독교세계관학교인 '하이세 아카데미'가 9월부터 2학기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를 진행 중에 있다. 9월 24일(토)에는 김정옥 교수님(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을 모시고, 서울 하늘공원에서 난지도 환경 캠프를 가졌다.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3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22명)과 어린이세계관교육을 준비하는 '2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9명)이 9월부터 개강하여 진행 중에 있다.
  - **부모 교육**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를 마치고, 9월부터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천로역정 읽기'가 진행 중에 있다.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대학생 교육** :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수업을 진행 중에 있다.
  - **교회와 함께 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 :
    - a.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에서 9월부터 1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가 진행 중이다.
    - b. 성광교회(남세주 담임목사)에서 9월부터 2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미디어가 뭐예요'가 진행 중이다.
- \* 문의/신청 : CTC 사무국(010-3673-8439) &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 바란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피터 워커 지음 | 박세혁 옮김 | 528면 | 25,000원 | CUP  
**예수가 사역하셨던 성경의 땅을 가다**  
**신약성경을 더 생동감 있게 하는 성경 지리 전문 안내서**  
**역사와 지리, 고고학을 탁월하게 융합한 최고의 성경 지리 안내서**  
**성경을 시공간 속에서 더 입체적으로 읽게 하는 흥미진진한 참고서**

“최고의 학문적 연구에 기초한 훌륭하고 주목할 만한 책이다” \_ 로완 윌리엄스 | 전 캔터베리 대주교

“경건한 성지 순례자의 눈으로 주석과 역사, 고고학을 인상적으로 결합하여 예수의 사역과 관련된 성경 유적지를 소개하는 탁월한 책이다.”- 마크 듀비스 | 미국 테네시주 유니언대학교 교수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고 (2022년 7월, 8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7월	2022년 8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2년 7월	2022년 8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670,000	670,000	인건비	일반급여	5,100,000	5,100,000	
	임원회비	360,000	42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3,970,000	5,040,000		소계	5,500,000	5,500,000	
	기관후원금	3,250,000	3,2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01,245	436,807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532,760	308,561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0	11,980	
	VIEW후원금	1,205,000	1,025,000		소모품비	6,480	4,980	
	기타후원금	0	0		식비	273,170	383,800	
	월보구독료	401,500	573,000		수선비	80,000	0	
	학술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816,350	745,29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퇴직연금	234,030	234,030	
	기타	0	20,050		교육비	0	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10,000	10,000		
			서무비		121,000	127,000		
			기타(지급수수료)		155,605	157,765		
소계	9,916,500	11,058,050	소계		3,535,640	3,325,213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221,435	1,193,145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281,160	1,252,87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570,761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05,73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254,600	0	
	예수금	414,900	409,000		소계	254,600	3,176,491	
				기타	세금	51,530	148,100	
			잡비		300	300		
소계	414,900	409,000	소계		51,830	148,40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204,400	
	소계	0	0		소계	0	204,4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20,000	12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30,000	0		학회홍보및기타	0	40,59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2,522,546	0	
	학술지게재료	0	0		학술지발송비	733,51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조교비	0	0	
	소계	150,000	120,000		소계	3,256,056	40,59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178,300	1,004,90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1,004,905	1,033,630	
	전월 이니시스 입금		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0	130,000	
	소계	1,178,300	1,004,905		소계	1,004,905	1,163,630	
당월 수입액		11,659,700	12,591,955	당월 지출액		14,884,191	14,811,594	
전월 이월액		41,788,198	38,563,707	차월 이월액 (잔액)		38,563,707	36,344,068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 편집위원 소개

<b>발행인</b>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b>편집장</b>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b>편집위원</b>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b>편집실무자</b>	석종준	사무국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극화에 <sup>같은</sup> 공동체성과 기독교

2022.10.29 토  
13:00~18:00

대학원생 10:00~12:00

장소 백석대학교(서울캠퍼스) 교육관 10층 아트홀

## 주제강연 (대면진행)

1.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

이국은 교수  
한동대학교 법학부

2. 정치 이념 양극화와 경제성장

강영호 교수  
송실대학교 경제학과

3. 한국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공동체성

김성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패널토의 사회

고세일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분과발표 (대면 중심, 일부 비대면진행)

대학원생, 공학, 경제·경영, 교육학, 사회과학, 신학, 의·약·간호학, 인문학, 자연과학, 학제간연구

## 발표논문신청안내

- ▶ 2022.09.30.(금) 논문신청 마감
- ▶ 2022.10.05.(수) 초록 마감
- ▶ 2022.10.11.(화) 논문제출 마감

신청·참가 [bit.ly/2022kacs39](https://bit.ly/2022kacs39)

논문제출 [gihakyun@daum.net](mailto: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한국로고스경영학회 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백석대학교 후원 새로남교회

문의 02 3272 4967 / [gihakyun@daum.net](mailto:gihakyun@daum.net)(기독교학문연구회)